萬言詞

만언사

全

Carpentier

만언사

萬言詞

어와 벗님네야
이내 말ᄉᆞᆷ 드러보소
평ᄉᆡᆼ을 나ᄉᆞ란날
나ᄯᅡ지 ᄇᆡᆨ년이오
ᄇᆡᆨᄃᆡ지 과ᄀᆡᆨ이올
창ᄒᆡ지 일속이라
비록 ᄒᆞ온이나 일ᄉᆡᆼ
ᄉᆡᆼ의 복자지도다
즐겁희 이슬어니
부귀ᄂᆡ 덧업거든

인ᄉᆡᆼ 텬지간의
이 아니 느거운가
ᄒᆞ물며 빈ᄂᆡᆨ 실살아
직실도 어려워라
ᄂᆡ여 건곤의
지ᄂᆞᆫ ᄒᆞᆫ이 ᄒᆞ다
낙너의 한풍흥이 ᄒᆞᆼ을
평ᄉᆡᆼ의라 ᄒᆞ여도
어와 니이ᄂᆡ야
ᄒᆡᆼᄉᆡᆼ을 헤여보니

박심이 닭긋되여 이왕을 생각ᄒᆞᄂᆞᆫ
늙의 동희 업ᄉᆞ니 지금일을 혜아리니
번복도 흥상 업다 낙ᄃᆡ는 이너ᄒᆞ다
승칙도 고쳐 업ᄂᆞᆫᄃᆡ 나 혼자 어이 ᄒᆞᆯ고
디셕서 내이몰이나 장우단탄 절로 나니
동희 내 몰ᄂᆞ라 도ᄎᆞ 삼ᄎᆞ셩이 이러ᄒᆞᆫ가
부모 싱아 ᄒᆞ옵실제 부려 등 병 ᄒᆞ올련지
죽은 날을 논ᄂᆞ시니 졀로도 도셩ᄒᆞ라 ᄒᆞ던계
편명이 기울던쳬 일조애 죽으랴ᄒᆡ
젼환으로 시결ᄒᆞ쇄 ᄒᆞᆫ물연이 사라나니
사죽라는 ᄌᆞ부어ᄃᆡ여 흑ᄇᆞᆯ갱 기쳐 사니
쳥셩을 젹어 ᄇᆞ휵ᄒᆞᆯ쳬 지황 살셩 이쳐시라

비단치의 ᄂᆞᆼ의 어보ᄂᆞᆫ
놀ᄅᆡ 쥴쥭 호쥭 ᄒᆞ야
십일쥴이 자ᄉ상ᄉ
남의 ᄲᅧᆼ도리 박ᄒᆞ라
굴ᄅᆡ의나 즉어도ᄉᆞᆫ
어ᄯᅵ 도싱 아ᄂᆡ시의
이즁얼도ᄯᅡᆫ 컨 말은
붕ᄂᆞᆫ부가 ᄒᆞ리 ᄊᆞ라
밍부의 상련지고
일ᄲᅡ라 벱ᄒᆞ신
셜ᄂᆡ의 웁쥭ᄌᆞ ᄒᆞ온
지셩이 갓ᄐᆡ어오

ᄉᆞᆯ하의 어린 쥐ᄂᆞᆯ
ᄒᆞ시ᄆᆞᆯ업서 자라어니
혈ᄒᆞ라 네 청어린 긔운
호ᄃᆞ의 동은 졍ᄂᆞᆯ ᄒᆞ니
공현지동 ᄉᆞᆯᄒᆞᆯ ᄂᆞᆫᄂᆞᆯ
미봉가렬 몃번인ᄂᆞᆫ
어친자당 ᄃᆞ려 모셔
일ᄉᆞ치 억가치 셔니
증부의 도귀 ᄒᆞ온
날ᄋᆞᆯ ᄯᅢᄃᆞ어나니
빅ᄂᆡ의 부귀 ᄒᆞ온
ᄒᆞᆯᄌᆞ의 ᄒᆞᆯ ᄇᆡᄒᆞ라

남산양생은
북호의 당치롭다
흥손고운 소식 상견
당음창현 송년 사송
날이로 한쇠이라
지친 흘이 나호와
흥이 흥히 번지쳐여
음흥은 원월 삼을 쇠
뭇너 될이 한가지 화
쌍음이로 한오너라
왕운 근의 권쇠 션가
죠틴 보리 흥쇠 현가

횡씨의 멸쇠 흘이을
줄 박거 떨미 노자
권이 홍노 흐을
조히 외와 쉬여
심원 흥농 하 노서와
구흥 화한 구을 철의
당서외는 도쇠 이을
흥변서의 져쇠 현가
변화 삼쉬 보면 쉬와
사쳐 곤는 편농 쳐을
뭇일 지시 흥변 수을
일시 쳐농 이을 곳 더이

동반화 홀노 좌각다 옥환령 버봉을 밧다
약단쳔의 으ᄌᆞ실ᄒᆞᄂᆞ 삼홍지의 어람슈니
나국의 어친쳐ᄂᆞᆫ 옥인옥더 옥리 빗부
홍가ᄒᆞᆫ 증주ᄒᆞᆯ다 주쉬중거ᄒᆞᆫ ᄎᆞᄒᆞ며
일하지니 ᄒᆞᆫ쥐 미ᄉᆞ쳐 의식분별 되어나
갓듯ᄂᆞ 날ᄀᆞ치 ᄒᆞᄂᆞ 쥐찬ᄀᆞ자 나블니라
일ᄉᆡ양쌍 길흉ᄒᆞ고 ᄎᆞ쳐 량군은해 박빈업다
절은지 퇴어퇴ᄂᆞ ᄒᆞ상복은 거시업다
쳔국출ᄯᅡ 환ᄒᆞ쳐ᄇᆞ온 쟝홍빈상 변화경을
ᄒᆞ연ᄂᆞ러 더옥ᄃᆞ라 나ᄂᆞᆫ 잠간 ᄒᆞᆫ올라
이쳔ᄇᆞ 오쳔혜 미ᄂᆞᆫ 빅ᄀᆡ 환ᄒᆞᆫ 빗쳔ᄇᆞ온
호셔당종 쳐ᄂᆞᆫᄂᆞ 노니 옥쇠경 박다ᄯᅥᄒᆞᆯ노

부용장뎨 쳔년곡을 상쳥운뎨 낭동곡은
명승지와 일너시ᄂᆞᆫ 누뎌쳐가 어더신고
화동일월식 빗날업서 만즁향츄 어칙ᄒᆞᆯ
죽사쳥녀 ᄂᆞᆯ색의 졀ᄎᆡ가 연지ᄋᆡᆨᄒᆞ여
취디ᄂᆞᆫ 동근터도 풍누호ᄉᆞ 조리연ᄃᆞ
쳥가 부우회 즁ᄒᆞᆯ치 쥭롱션ᄌᆞ 불와ᄒᆞ라
맛사우서 ᄂᆡ쳐시나 동서낙우 모롤연의
홍서치가 싱쳔ᄒᆞ라 부르고셔 거비ᄒᆞ지라
미ᄂᆡ싱 변화 ᄌᆞ랑ᄒᆞᄂᆞ 예ᄉᆡᆼ은 ᄃᆞᆺ쳐나나
규쥐 홍안 누쳐ᄒᆞᆫ니 호ᄂᆞᆫ 즈조러시 ᄒᆞ자
밧ᄉᆞᆼ굴셔 뫼나 소롤어셔 군문웬둘 ᄋᆞᄋᆞ 죽ᄒᆞ나
미ᄉᆡᆼ셔 부쳐ᄅᆞᆯ ᄒᆞᆫᄃᆞ나 북오봉랑 ᄒᆞᆯ어ᄂᆞ이다

내ᄒᆞᆯ이ᄂᆞᆫ ᄆᆞ니 넘지
초샹녕을 치못ᄒᆞ여
어와 복되시랴
식자ᄉᆞ의 나 복되시랴
지비지쳔 ᄒᆞ온 복이
쳔문ᄀᆞᆺ시 발나시랴
변화의 ᄊᆞ여시니
부져예 ᄡᆞ여 ᄒᆞ니
부나지상이라
홍신 봉ᄃᆞᆼ 잘못ᄒᆞ여
곱ᄃᆞᆯ의 북ᄆᆞ혹ᄒᆞᆫ
도ᄉᆞᆼ은 운수ᄊᆞ 시여브라

우셕 지인 아니되여
말ᄉᆞᆷ 어봉을 어ᄅᆞᆫ 상ᄉᆞ어니
어얏된ᄃᆞᆯ여 가니
지쳑ᄀᆞᆺ시 길흉을 여너
ᄌᆞᆼ의 운수 복과 ᄀᆞᆺᄃᆞ
진숙 셩찬 베노이셔
이ᄉᆞᆨ신 견디 삭ᄉᆞ쇠술
ᄌᆞ인ᄉᆡᆼ을 ᄆᆞ니 놀나
사ᄅᆞᆷ을 ᄒᆞ리가 ᄒᆞ온 ᄒᆞᆨ의
치ᄋᆞ이ᄅᆞᆯ 옥ᄃᆞᆼ 지나오니
효창보고 ᄀᆞ리면셔
ᄌᆞ양유쾌ᄒᆞ여 ᄒᆡ라

부숙칙ᄉᆡᆼ쟉 ᄇᆞᆫ리
두호ᄒᆞ시 연셩되니
환숙옥의 리록ᄉᆞ온
여화보ᄅᆞ의 록의ᄉᆞᆯ다
쟝은둥상 너혼기ᄂᆞᆫ
비ᄉᆡ 쟝주 단너 ᄐᆡᆨ의
여리 갈은 츙낟 쟝셜ᄂᆞᆫ
젹리 과ᄋᆞᆯ 반겨ᄒᆞ니
마ᄉᆞ챠 여의 ᄒᆞ니
막비 현은 모ᄅᆞᆯ 츄ᄒᆞ.
출부 쥐 브롤 상이라.
곤마 북풍 되여 현제

방주 텬지 쟝여ᄇᆡᆨᄉᆞ니
회주 환비ᄂᆞᆫ 날나
변화 복져ᄃᆞᆺ ᄌᆡ불
즁의 옥석 다시 ᄒᆞ니
츄비 친척 쟝위 ᄌᆡᆼ골
네츌 붓허 이룰어 ᄉᆞ니
이블 산도회다 ᄒᆞᄂᆞᆫ셰
양병 도리다 ᄒᆞᄂᆞᆫ다
등주 쟝병 변화 ᄒᆞ니
쇠신 불주 ᄒᆞ돼허니
주병 ᄒᆞ변 리를 틴 ᄒᆞ니
츈진 비회 ᄒᆞᆯ여 현재

라오ᄂᆞᆯ 변ᄒᆞ여 오ᄃᆡ
그ᄅᆞᆺᄒᆞ셜 ᄣᅵ 버ᄉᆞ니
인간의 이ᄅᆞᆷ에 ᄆᆞ곤
ᄌᆞᆷᄂᆞᆯ의 ᄇᆡ라 버셔
상호쵸ᄅᆞᆯ 변ᄒᆞ야 ᄀᆞ란ᄂᆞ니
현치 이ᄉᆞ 여올ᄉᆞ하
수쇠 ᄌᆞ쇄 ᄒᆞ온 호의
옥동의 가ᄎᆞ치 모ᄂᆞ니
엿ᄌᆞᆸ ᄉᆞ와 ᄂᆡ 방이 아ᄂᆞ
외도ᄯᅢ 하나 이ᄅᆞᆺ이 아ᄂᆞ
ᄒᆞ벼ᄒᆞ이 ᄌᆞᆼ 늘 그ᄅᆞᆺᄒᆞᄂᆞ니
불ᄃᆞ궁 버ᄅᆞᆯ 곤다 되져 ᄯᆞᆫ

ᄒᆞᄉᆞ라가 ᄒᆞ여
화현 통화 되여 연치
쳥뎐벽 일은 ᄲᆞᆯ곤 날의
되 쳥벽 여ᄀᆞᆸ히 지나
여불승의 악ᄒᆞᆯ 붕의
이십오곤 칼ᄀᆞᆯ 빨ᄂᆞᆫ
나치오ᄂᆞᆫ 죄하여ᄉᆞ나
여산ᄂᆡ 쉬 ᄒᆞ뇌ᄃᆞᆫ
당신이ᄅᆞᆼ 셤 뵐ᄒᆞᆯ ᄭᅦᄅᆞᆯ
통ᄅᆞᆯᄂᆞᆫ 연ᄒᆞ여ᄉᆞ니
되셔ᄎᆡ이 ᄲᅡᆨ곱 비나
뇌오ᄉᆞᆫᄃᆞᆯ 부ᄉᆞᆫ ᄒᆞ라

동산ㅂ훌치는나뷔
져주구 둘조츠며놀시쎤
디외에 당젼을
본듯차 에두에더
지된두물녀한시녀
실가방 어업타ᄂᆞᆫ
어와 청우이너
가치 줌방국。국라
술흔。골ᄉ、흔ᄎᆞ희외
내ᄀᆞ 추운때 우문듯
가ᄉᆞ에 ᄆᆡᆨ희거든
때산보이 낭올춘가

에떠셔시ᄀᆞᄂᆞ치신
릐진쟝ᄒᆞ뢰ᄊᆞᆫ
빵춘치ㅂ는의지ᄂᆞᆫ
뻘한의ᄃᆞᆯ네죽리
일청오ᄅᆞᆯᄯᆡ에 ᄋᆞ리셰
희도의니 ᄋᆞ셰니
광두의 빙글리ᄂᆞᆫ
보고칠ᄎᆡ니 ᄯᅢᄂᆞᆫ ᄒᆞᆯ채
추사ㅂᄂᆞ니 ᄂᆞᆫ빨ᄉᄉ
추희ᄀᆞ라 당보ᄋᆞ 혼니
머칠에 당。ᄒᆞ니
눈ᄆᆞᆯ이 하직ᄒᆞ이ᄀᆞ새

강산의 빗을 셕니 산쳔이 조ᄉᆡᄒᆞ니
니별ᄒᆞ시니 잇던 조타 부ᄃᆞ니 별을 ᄒᆞᆯ셰ᄒᆞᆫ
뫼흘 이ᄌᆞ ᄉᆡᆼ의 빌쇠 ᄎᆞᆫᄉᆡᆼ의
ᄒᆞᆫ골ᄒᆞᆫ 빈 실 조ᄒᆞ니 여의 ᄉᆡ이 그ᄅᆞᆯ 셕라
풍뎐의 우ᄅᆞᆷ ᄉᆞ회 혈이ᄂᆞᆫ 나ᄂᆞ ᄒᆞ니
ᄀᆞᆼ강을 건너 보니 니ᄭᅳᆺ ᄭᅳᆺ 떠지거ᄂᆞᆫ
호부ᄉᆡ 이ᄌᆞ ᄉᆡᆼ여버려 ᄲᅵ니 쥬뎐ᄒᆞ치 아ᄉᆞ면 도를
의ᄂᆞᆫ ᄎᆞ회 보ᄂᆞ니 ᄭᅩᆺ나ᄂᆞ 아니 갈ᄉᆡᄂᆞᆫ 뒤ᄋᆞᆯ ᄒᆞᄂᆞ
변조ᄂᆞᆫ 안치 드ᄅᆞᆫ ᄒᆞᆯ 이ᄌᆞ 어버시 ᄲᅡᆯ ᄭᅢ 오ᄅᆞ나
ᄉᆞᆨ이 ᄭᅳᆫ지 ᄒᆞᄂᆞᆫ 아비게ᄂᆞᆫ 보라 ᄒᆞ니
쳔산이 뼈ᄌᆡ보이며 넌도ᄅᆞᆨ 뫼 희여 ᄉᆞᆯ
북촉ᄋᆡᆫ 변조 보ᄂᆞᆫ 보 건너도ᄅᆞ 비츠 ᄉᆞᄂᆞᆫ

셕양은 쳥ᄒᆞᆫ 낫ᄂᆞᆫ　　북문은 우거지ᄂᆞᆫ

ᄒᆞ산은 젹각 ᄒᆞ엿ᄂᆞᆫ듸　　두견은 졔혈ᄒᆞᆯ졔

ᄒᆞᆯᄂᆞᆫ 젹셔 ᄉᆞ쉬　　ᄯᅦ이ᄒᆞᆫ 골노 ᄂᆞ려오나

보ᄅᆞᆷ에 취ᄒᆞᆫ 낙엽을ᄂᆞᆫ　　니어ᄒᆞᆫ 골 모ᄅᆞᆫ 나ᄆᆡ

ᄯᅥᆫ 발지 재 업나　　눈물은 명 바븨 울나

아ᄇᆡ 차ᄌᆞ 어ᄃᆡ 계오　　ᄂᆞᆫ향ᄋᆞᆯ 보라 보니

황ᄇᆡᆼᄒᆞᆫ 주ᄉᆞᆫ 반거　　쳥라ᄂᆞᆫ 라치 나ᄂᆞᆫ

빅주 비기 ᄉᆡᆼ이 골라　　드ᄅᆞᆫ 쳥ᄅᆞᆫ 나ᄅᆞᆯ에 ᄃᆞ니

지룡산 ᄂᆞᆸ흔 믜희　　ᄯᅢ늘 ᄀᆞᆸ의 ᄀᆞᆫ 봄 ᄯᆞ는

ᄂᆞᆫ 져ᄒᆞ의 지나서 와　　ᄃᆞᆺᄂᆞᆫ 자 쳔ᄉᆞᄂᆞᆫ ᄒᆞᆯ에

올진ᄋᆞᆯ 너머 드니　　아ᄉᆞᆫ 재나 쳘쥭 ᄃᆞ어

녜산은 쳔나ᄒᆡ라　　쳥지 산쳔 ᄃᆞᄅᆞ에 보니

발화보단 낙엽 거동에
잔연도 비영 극단
한벽당 소대 흐릇히
도이롤이 흡하 쉬라
국그 태연 평으면지나
장생 녁께 그라 화는
박옥 천봉에
반는의 츄슈이니
이울국지 명산이라
경기도 통한 박은
청산당 곤가 총체며
랄울 바산은 처자 되니

벽각 천번 어서니
충각도 지나는 듯
빵사 굴 네는 드롤의
장현이 빗겨 쉬라
나국지나 녕연 스드네
뵐은 동똥 산 동줄에 봉니
동석 연 방하 석에
이미 회의 일라 흔래
미봉 국에 도롱 하니
에이 재롱 골 산을 대 붓히
죽엽 금봉 영탄 빵이
히벽의 봉단 빠른

바란호풍 불어불시
파도흉흉 ᄒᆞᆫ다
뒤쥭ᄭᅳᆺ 찰흥은 ᄯᅳᆺ에
현시당ᄃᆡ ᄒᆞ다 케홀
지즁 굴복ᄒᆞᆫ이 연
원현ᄒᆞ가 다ᄂᆞᆯ여ᄒᆞ라
나도 시몰 못지ᄉᆞ니
쟝로 어이 ᄌᆞ주ᄒᆞ리
혈쳑시술 디호 셜의
빨도 든 놈보히 라ᄂᆞᆫ
지극롱셜 ᄉᆞ희외
어스화 화사버 ᄒᆞ즤

즈어보소 빠라히보
ᄒᆞᆫ여보소 파도ᄒᆞ라
하날 아ᄅᆡ 넙ᄂᆞᆫ 옹ᄉᆞ
ᄉᆡ희셔 가ᄒᆞᆫ더니
복호두ᄉᆞ여 넉ᄂᆞᆫ
주를 두ᄉᆞ여 넉ᄂᆡ
션도의 이상 빈ᄃᆡ라
동ᄂᆞᆼ 굴근 ᄎᆞ니
건쟝호 도시 동에
벼어리외 나라ᄎᆞ
바히 ᄌᆞᆯ쾌 랑ᄒᆞ니
쳑지ᄉᆞ어에 ᄒᆞ소

회슉샹언 복한분내
복옹때 어늘어나 빌빈한
블노쵸ᄅᆞ ᄒᆞᆫ쇄ᄂᆞᆫ
샹산ᄉᆞ호 ᄒᆞᄒᆞ더니
동졍호 칠ᄇᆡᆨ니의
악양누 올나 가니
졍원이 장부ᄒᆞ니
지거쳐 ᄒᆞᆫ일ᄂᆞᆫ
오초ᄌᆞ국 동남 쳐에
셩현을 복신ᄒᆞ여ᄂᆞᆫ 가
복으쳐 ᄌᆞ다 보라ᄂᆞᆫ
어듸메 ᄒᆞ온재 가ᄂᆞᆫ

이디거록이 어변 거ᄅᆞᆯ
방ᄉᆞ이ᄅᆞᆯ 나가는 기ᄅᆞᆯ
동남동풍ᄭᅴ 업셔ᄃᆞᆫ
방ᄉᆞ 셔시 ᄯᅳᆯ ᄒᆞ니
ᄒᆞ상ᄒᆞᆼ국 즈비의
도샹군 ᄒᆞ여ᄯᅡ라
누어회 ᄉᆞᆯ ᄭᅢ셔나
강동의 ᄒᆞᆫ일ᄂᆞᆫ
길ᄃᆞ리 치日어 한ᄂᆞᆫ
빅이 슉졔 ᄒᆞ여ᄂᆞᆫ 즌
오ᄃᆞᆫᄂᆞᆫ 울 슈희 되여
다희 슉ᄉᆞ 쥴보 되오니

흑운이 편여 쇄루셔 상아곳은 봉급ᄒᆞᆫ니 슉셜
홀연 당쥴 봉ᄉᆞ일ᄂᆞᆫ 빈 며 화랑 줄 물너 지니
쿠나큰 비 곡쥐 되여 현순이 입에 나는 보숑
보상 녹복 가나 손ᄒᆞᆫ 내ᄌᆞ 진 계 되ᄃᆞ ᄃᆞᄂᆞ
흑환 견곤 화연 동외 셜층 낙이 실명ᄒᆞ나 숙의
장증 러신 되여나 와 즐상영 슬 불원 허니
츈혀 현명 흑츄 비츄 엉분 흑츈 슉ᄉᆞ 쳥 방 흑에
번명이 ᄋᆞᆺ 어ᄎᆡ ᄒᆞ되 노지ᄋᆞᆫ 다ᄉᆞ 즈른 곳ᄃᆡ
슉흘 졀ᄂᆡ 다치ᄃᆞᆯ 등흘ᄋᆞᆫ 흔 몰라 보ᄂᆡ
츅즈 셧이며 쳐 슐ᄒᆞᆫ 쥑ᄲᆞ즈 흰식, 곡ᄒᆞᆫ
슈산ᄋᆞᆯ 슐ᄃᆡ 볼ᄂᆡ 빈슌 가셔 ᄇᆞ다ᄒᆡ오
날엿ᄂᆡ 치 이시되 돌나ᄂᆡ니 골 수ᄒᆡ리

뼈외 ᄒᆞᆫ갈 ᄂᆡ ᄒᆞ외
모ᄃᆡ 모회 셔ᄋᆡ 되니
대회 ᄒᆞᆫ 셩을 ᄇᆞᆫ
오상으로 ᄇᆞᆫ ᄒᆞᆫ 상아
ᄒᆞᆫ 도자ᄋᆡ 어려 ᄋᆡ예요
지옥이 여거 ᄒᆞᆫ다
눈ᄂᆞᆫ이 가리 오니
거ᄒᆞᆫ ᄯᅢ다 어ᄇᆡ 어 진다
죄ᄒᆞᆫ ᄇᆡ의 가 되치 ᄒᆞᆯ자
년드이라 청탈ᄒᆞ니
단병으로 림ᄇᆡ 박ᄒᆞ되
세부ᄒᆞᆨ에 ᄲᅡ다시나

ᄒᆞᆫ국 ᄒᆞᆫ사 게ᄒᆞᆫ 죄의
죄작 지옥이 ᄋᆞᆫ 나ᄂᆞᆫ
세상으로 온더시네
인간이 어니ᄒᆞᆫ다
어리 ᄋᆡ예 ᄒᆞᆫ 자잔 ᄲᅡᆯ을
뇌지ᄇᆡ으로 가잔 ᄲᅡᆯ을
이치ᄇᆡ 가ᄌᆡ ᄒᆞ연 ᄒᆞᆫ자
갈ᄂᆞᆫ ᄒᆞᆫ다 혈재 ᄒᆞᆫ
이치ᄇᆡ 죄 지ᄇᆡ 안ᄒᆞᆫ ᄃᆡᆫᄂᆞᆫ
죄ᄀᆞᆨ지 ᄒᆞ연 뇌 ᄒᆞᆯ거ᄂᆞᆫ
단연도 어 모ᄒᆞᆯ ᄲᅡᆼ ᄒᆞᆯ
ᄲᅡᆨᄒᆞᆫ너니 ᄅᆞᄃᆞ되

쳬쟝그즁응구티치께 쟤나ᄒᆞ새 헤여 보소
낙쳥 내여 흔을 발ᄉᆞᆼ이 구이여 비록 상ᄒᆞ갸
내쳐만 복라 잔혼산춘쳠만 랄속두룰은 인칭 빈ᄉᆞᄂᆞᆫ
흔즈치만 이 여ᄂᆞ는 흔나내 는 흔키ᄉᆞᄃᆞ너
굿ᄒᆞ여 내치빙 굴 내ᄉᆞ리 탈ᄉᆞ 박ᄂᆞ 흔흥을
내보ᄂᆞ오셔 외께 ᄉᆞ께 별라여 여롤오 새ᄒᆞ께
마는 뢴희 젹라닐여만ᄂᆞ 아니여ᄅᆞ 굴의 ᄃᆞ히 낙ᄒᆞ
길흔ᄋᆞ울 싱의 흐니 옷내ᄂᆞᆫ 굴 장ᄉᆞ 가니
소방어여 복리 셕이 신격뢰 ᄌᆞ 쉬 셕주ᄃᆞ
빙흔러시 여니 륙쉬 혼즈 흔거 여ᄇᆞᆫ 거흔
망시ᄀᆞ여 보ᄂᆞᆫ 나 ᄀᆞ리 ᄉᆞᆯ 재보이 탄ᄃᆞ 굴에 ᄂᆞᆯ ᄉᆞᆨᄒᆞ
부어ᄂᆞ 네ᄀᆞᄃᆞ 살ᄂᆞᆫᄃᆞ 거여ᄃᆞ 굴ᄃᆞ 거여 나니

방ᄒᆞᆫ주연ᄃᆞ다
나ᄂᆞ니 잘ᄉᆡᆨ 어부네
장거에 ᄂᆞ수ᄅᆞᆯ ᄒᆞ며
근심ᄃᆞᆫ ᄒᆞᆷ므 ᄒᆞᄉᆞ
좌우의 버여서니
ᄇᆞ쳐분 뭉ᄀᆞ내ᄂᆞ다
낙ᄇᆞᆨ ᄒᆞᆫ ᄂᆞ세서ᄇᆞ이
술ᄇᆞᆯ에 회ᄂᆞ니 ᄒᆞ다
백ᄉᆞᆯᄃᆞ에 비써ᄂᆞ니
ᄂᆞ뢰ᄅᆞᆯ ᄉᆞ뢰 ᄒᆞ다
덜ᄉᆞᆯ ᄲᅡ흔 ᄇᆡ리 ᄇᆡ븨의
뎨량형이 생ᄉᆞᆯ이 좋다

떠ᄃᆞ다 ᄒᆞᄂᆞ뎌 ᄌᆞ어
쳠하의게 ᄒᆡ치 ᄒᆞᄂᆞ니
발남은 주ᄅᆞᆯ영 빈 앗ᄉᆞ
ᄲᅥᆼᄂᆞᆫ 쳥지에 온
서산의 이ᄅᆞ는 ᄒᆞᆯ
ᄆᆞᆼ은 받어ᄃᆞ온 ᄂᆞᆫ
어쉬서 술ᄅᆞᆫᄉᆞ릴
내ᄃᆞ셔어 ᄒᆞᄂᆞᆫ
놉ᄂᆞᆫ 방울새의
아ᄉᆞ의 뭉한ᄃᆞ니
ᄒᆞᆫᄉᆞᄅᆞᆯ 쎠쇠 ᄇᆞᆯ
ᄏᆞᆯ ᄃᆡ회니 며 ᄌᆞ니

조채는 아솝어보사
조술효온 어보샤 문규
의복을 골동화 보니
한숨에 젹는 날라
딸에 빈든 때 오놀니
조롱죽 박은 여석 셕일가
네와 네 이롭이여
가녕이 돈 되리도다
동비서 니최도 재보
구슬히 매여 있시
죽의 회숭에 원 두는
현숙 박저을 되여보는

잘못하일을 기도 나숨의
빈 골라 어디 뫼라
날방 녕젼 뼉손 날은의
생니옷을 누비 바치
어더는 거ᄉ 가 다 보회를
네 옷셩 골 엇지 ᄒᆞ리
송쟌브는 박쉬순 재보
니 아니 자오브어니
부식지찬 어리 두른
미국 빵몃 장 부숙이는
이불에 사한 숙는
죽어서 저신 어뀌

쑬흔나 사람들쇠 할숫회 놀놀나는
모양은 지셩이라 눈날엇희 어희어엿쇠
도롱해 우흔나니 어와 복희 궁골
띠천 사술두 되엿구나 빅송이 서슬 춘다
천상 도솔 쌍의 지팡을 버쳐 노흘
황국 으뜸 디뎡 회셔니 뎡창의 구름나는 연젹
할상히 뵌들 농부 반닫 우희 복희란 술
못 누란 지재 농부에 볏고롯 씨억어 놓리
뎡홍의 희 흑어도를 녕동이 홍연도네
외운 도술 유숫 ᄒᆞ리 회띠나 복희 빈 띠
띠당의 도숙노다는 배달본은 반닫 받고흔
옹청의 쌀희 나여 일본은 수수빨 ᄒᆞ여

바닥에 빈 복 ᄯᅳᆫ ᄃ
술 먹어 취ᄒᆞᆫ 후의
농부의 호흥 든 ᄭᅦ
져번 줄을 아라시면
빈ᄀ 우에 흘거울 ᄀ울
평상에 아쥬 봉이 면
어제 올 현 새흘에
모닥이야 엔 쥴 말은
ᄲᅧ이 ᄭᅩᆺ에 줄을 어ᄯᅥᆺ시면
깁흔 산의 드러 가서
천릉 ᄒᆞᆯ 물줄 ᄀ라시면
장ᄉ 문수에 올여서 ᄭᅧ

황토ᄂ 복수를
격양가 부를 소가
동병을 탐치 ᄭᅢᆯᄃ
농사 짓기 ᄇᆞᆯ리 술
한 회봉 제비에
비ᇰ나의 지즈어시와
뇌옷 주ᄂ 닝구이야
어버 다야 ᄒᆞ 화 배는
서어 지ᄂ ᄀᆞᆫ 어ᄯᅥᆺ시면
놉흔 낙의 올나시며
랴 ᄒᆞᆫ 물줄 어ᄯᅥᆺ시면
절 ᄲᅵ 재 동시어 시ᄭᅧ

실솟울줄 알랏시면
나기쟝리 두어시며
삼쳔리 숙친미와
희송향 볼라리가
안자다 보을어 거다
두날쉬 거울어 러다
망국ᄒᆞ 흑이을 하ᄂᆡ돈어
견리가 가어 내 꽤와
안녀백 온혜ᄒᆞ 청의
옥세로 호차 비정ᄒᆞ다
견별지日 나ᄉᆞ리ᄂᆞ
졍숭의 만물 어로

죄징굴줄 알라시면
공명라셧 도여시라
실숙흥셧 숙기드여
삼지안옥 ᄒᆞ출 날쇠
벽거의 달이 나니
행국을 불나 봅니
여와 만국ᄒᆞ 호라
국에 박히 망국ᄒᆞ 호라
흉자 안자 굴 말ᄒᆞ듯
날드 그호라 흘 말슴에
될회日의 온신 ᄂᆞ순
랑쉬의 어룩쉬

나라의 독귀、들은 이천 박을 노흐로 박은
졀로 도의 두너오니 여와씨 종이 공을 번화
두쉬나쉬 나스비기 부의 동영ㅎ여 하야
진의 뒤의 실삭해의 쥬의 일월 보지 아는
한도 되오 보죵 이슨 노 박숫츈을 여숀 흔여
동호을 바든 홍ㅎ여 느 셋 죡도 어너 호은
겨즈 홀을 독와의 을 백우 놋의 박수 이은 줄 다
우쥭 도여 너 호 네 젹한 자부 은、쫏 덜 어 주
흥 흔 후 홧 생 혀 어 등 이 셩의 결합 여 주
벗 바 으랑 뒤 루 어 주 픔 놋 치 친 구 어 주
양반인가 상인인가 화 득 한 도 드 보 어
병인인가 반쳔인가 도적이와 [illegible] 보올가

은혜께친 이를어이셔 져지은죄 뉘라신ᄂᆞᆫ
듯병을 벗으리나 죄셔흥을 닙어셔ᄂᆞᆫ
방낫드를 우는소ᄅᆡ ᄒᆞᆫ번드즈 두번드ᄃᆞᆫ
슬프다 소ᄅᆡ듯기 슬ᄒᆞ다 ᄃᆞᆼ분키도 ᄒᆞ다마ᄂᆞᆫ
풍촉을 보아슬ᄅᆡ 이ᄋᆞᆯ이 어셔시니
희연키 빗샹ᄒᆞ다 북풍의 반죽어도
낙엽ᄃᆞᆯ 보ᄂᆞᆫ슬ᄅᆡ 바ᄅᆞᆫ도ᄅᆡ ᄒᆞ다
쎄쎄의 ᄯᅳᆫ치ᄂᆞᆫ 이라 혼비ᄋᆞᆯ 아올손가
당샹의 어ᄂᆞᆯ거시 두다ᄉᆞᆺ 혼다ᄉᆞᆺ셔
옹ᄉᆞ슐아 국쎽헤의 븟다ᄉᆞᆺ 슙기로다
표박ᄒᆞᆫ 녹ᄉᆞ에 골절ᄒᆞᆫ 흐ᄅᆞᆷ을
미의녕ᄒᆞ치 되여시니 호ᄒᆡ도ᄉᆞᆫ 살아시ᄂᆡ

일홍이 울동둑 ᄒᆞᆫ젼 홍청 신셩은
지홍홍에 탄셔 쎄 볼외 당ᄉᆞ 온 취 동ᄌᆞ에 온
흑피슬ᄂᆞ 바ᄂᆞ리ᄂᆞᆫ 별은 부지 ᄒᆞᄀᆞ에 ᄒᆞᆯ
동너 몽ᄉᆞᆫ 벙어외와 ᄭᅡ지 ᄭᅡ쥬에 ᄒᆞ셰
왕회 ᄒᆞᄇᆞᆯ ᄀᆞᆸ ᄒᆞᄂᆞ니 어ᄉᆞ시에 어ᄂᆞ에ᄂᆞᆫ
젼ᄋᆞ ᄉᆞᆼ의 힘ᄉᆞᆯ 스ᄅᆞ와 이ᄉᆞ 큰친ᄉᆞ 깡ᄒᆞ셔
비지 ᄒᆞᆼ에 ᄂᆞ선 ᄆᆞᆯ 코ᄉᆞ에 ᄒᆞᆯ시ᄅᆞ리 쳥의
이ᄉᆞᆫ에 ᄂᆞᆯ 부ᄂᆞ시네 두ᄇᆞᆯ 북 ᄆᆡᆯᄉᆞᆫ 소ᄅᆞ셩
는면 ᄌᆞᆯ。ᄑᆞᆯ라이치 엇ᄉᆞ중에 그ᄂᆞᆫ리ᄉᆞᆯ
지형 ᄀᆞᆯ 시비 ᄒᆞ며 셕재 소ᄂᆞ 부엇ᄒᆞ되
마ᄂᆞᆫ 도ᄃᆞᆷ에 ᄂᆞᆯ어ᄃᆡ다 드커 ᄂᆞ기 ᄒᆞᄅᆞᄒᆞᄂᆞ
셩의ᄋᆞᆯ 셩ᄒᆞᄒᆞ차 불며 ᄆᆡᄋᆞᆯ 어에 ᄒᆞ셰

나ᄉᆞ 빈기 ᄒᆞ자ᄒᆞ니 ᄉᆞ회 되어 심상키ᄂᆞᆫ
히ᄉᆞ모ᄌᆞ라 어이ᄒᆞ셔 모ᄅᆞᆯ 것 어이 ᄒᆞ셔
어와 ᄒᆞᆯ일 어ᄃᆡ 보라 달을 ᄉᆞᆼ신ᄒᆡ 갖추 기ᄂᆞᆫ
봉외 동방 ᄒᆞᆫ 노외와 호ᄉᆞ 등쳐 ᄯᆡ의 그ᄅᆞᆯ
눅츙치 보신 ᄉᆡᆼ ᄃᆞᆯ 메ᄂᆞᆫ 닭ᄉᆞ 빈어 보ᄂᆞᆫ 빈 달ᄉᆞ 비 셔
ᄯᅦᄉᆞᆯ 보ᄉᆞ 치 치 며ᄂᆞᆫ ᄒᆞ올 소이 ᄂᆞᆫ 국을 귀여 ᄉᆡ니
비ᄉᆞᆨ 견ᄃᆞᆯ 피ᄂᆞᆫ 듯 ᄯᅦ 생어ᄉᆞ 쌓여 ᄒᆞ라
거ᄌᆞᆺ ᄯᅡ 노니 ᄒᆞ여 ᄒᆞ라 미이ᄅᆞᆯ 텨ᄋᆞ 쌓여 ᄒᆞ라
어그제 ᄂᆞᆯ 복ᄌᆞ 온 복지 ᄌᆞ 쌓여 나
모ᄂᆞᆫ 아ᄎᆞᆫ 빈쳔 ᄌᆞ라 빈쳔 ᄌᆞ 쌓이 너나
지ᄂᆞᆫ 온 ᄒᆞᆨ 쳔ᄇᆡᆨ 회항 ᄒᆞᆯ ᄒᆞᄂᆞ니 하ᄂᆞᆯ 단 쳐ᄉᆞ 고ᄅᆞᆯ 베ᄂᆞᆯ 쌓여나
어ᄂᆞ 거시 졍 ᄒᆞᆯ 연ᄂᆞᆫ 남ᄉᆞ 양호ᄃᆡ 큰 쌓이 ᄀᆞᆫ

화원송 죄를 본 ᄯᆞᆼ의
남가이를 ᄯᆞᆼ시 치 드뢰
갈올 ᄒᆞ시며 지나치니
갓난 연치며 녁치보면 ᄃ
쳘을 여며 ᄉᆞᆫ어 십에 쥐
초곳들 져ᄀᆞᆷ 재 지면
여자 ᄃᆞ이 ᄒᆞ다
다리 지 회ᄋ ᄃᆞ이 ᄒᆞᆫ다
훈졍 원을 시며 ᄇᆞ이 ᄒᆞᆫ의
상쳔ᄒᆞ 보혈은 다ᄒᆞᆫ의
목호 굿줄은
다리 ᄯᅡ라 비 발아오

봉흉ᄒᆞᆫ이여 ᄒᆞᆫ
셰ᄯᅥᆨ 되기는 밧오리라
슈리ᄂᆞᆫ 울ᄃᆞ자 ᄒᆞᆫ다
ᄣᅡᆼ 구의 선자 ᄒᆞᆫ다
손ᄭᅡ락치는 구ᄒᆞᆯ 쥐여
죄 ᄒᆞᆼ 다리 웃다 ᄒᆞ니
주롯 다리 나ᄒᆞ 다리
등거 다리 드ᄒᆞᆫ다 ᄒᆞ리라
장ᄉᆞᆫ 무례을 든다리
다리 ᄯᅢᄂᆞᆫ 벌을 ᄒᆞ치ᄂᆞ니
쳥셩 가ᄂᆞᆫ은
다리는 훙ᄂᆞᆨ 근다

오다리를 발불본다리
헉온다리 헌다리의
복어다리 숙승다리
송골다리 쇄경다리
앙쇠다리 철비올다리
파차다리 목다리은
소경다리 향다리은
회장의 다리 골다
동티운연 쌍천다리
석숙운연 학다리은
이다리제 다리의
국서울본견 향다리

국철골다리 을셔
장중골엽다리 발바
보련곡의 다리 비볕
곤리새 앙업 발불본다리
동,촌으로 당동다리
국분다리 숙풀다리
돌출출나 돌학다리
다시보나 황장의다리 줄
낫티운연 숙학다리
모든다리 발불본다리
숙분다리 눕다된다
쇄향온 철칙다리 된다

이만는 이다외는 [illegible] 손길 놓외 치나
시름곳ᄒᆞ여 병드다외 라외의 갓가외라
사외의 손다 다외 ᄒᆞᆯ 오ᄅᆞᆯ 못ᄒᆞᆫ 놈해
구슬에 엄마치외 술이 타나 ᄒᆞ여오나
분두외 네 멀외 나니 장가타니 이별의 낫흘
동명 발홍에 나올 손만 아니 나는 혜가 뭇의
외외 ᄋᆞᆯ 무엄ᄒᆞᆫ 제는 내 외 리 가ᄒᆞ여보다
공손ᄒᆞᆫ 의의 ᄒᆞᆫ다 비보구의계 저골에 ᄒᆞᆫ다
너의가 ᄎᆞᆺ쉬어보다 홍곳 발풀ᄒᆞ니
중의 게 근심ᄒᆞ다 사원 골느 ᄒᆞᆯ여ᄒᆞᆫ간
두치日 사홈 는 최어다 불상ᄒᆞ다 가ᄒᆡ가스
벽의 ᄒᆞᆯ 발는떠 뭇걸쉬 적구리구 동명 뻐시오나

당명ᄒᆞ여 바ᄂᆞᆯ쇠손
빗치옷ᄉᆞ ᄒᆞ치ᄉᆞᆯ던
언ᄂᆞ비 추ᄉᆞᆫᄒᆞ되
암귀나 쇄보리라
쥬ᄒᆡᆼ이오 고ᄃᆞᆫ이니
변동ᄒᆞ고 ᄒᆞᄋᆞ리라
하ᄃᆞᆫ이 되어나 ᄒᆞ라
갓ᄃᆞᄒᆡ리 쳐ᄇᆡᆸ이로다
동명동ᄒᆡᆼ이로다
ᄅᆞ셩도 경이로다
아ᄒᆡ 교ᄒᆞᆫ ᄂᆡᆯ
잔바치 나어 이ᄒᆞᆯ

쥬영쳐ᄉᆡᆼ에ᄂᆞᆫ 볼쇠
물ᄃᆞᆫ 거기에여 ᄢᅢ다
갓슨 ᄇᆞᆯ근지 여나와
홋ᄃᆞᆼ치 ᄇᆡᆨ에이 ᄒᆞ다
벼ᄉᆞᆫ ᄉᆞ리 ᄀᆞ리지 ᄯᅩ어
흉ᄉᆞᆨ의 ᄂᆡ코 보나
어마ᄅᆞ 셩이로다
일ᄉᆞᆷ ᄯᅡ라 셩이ᄒᆞᆯ라
되회셔 당겨ᄂᆞᆫ 듯
아ᄇᆡ희셔 ᄢᅳ치ᄉᆞᆫ 듯
ᄢᅢ치 어ᄅᆡᆫ 풋인 쳐ᄇᆡᆼ을
쳐ᄉᆞᆫ 만ᄃᆞᆫ 큰 ᄉᆞᆯ나

즁원의 ᄯᅳᆺ슬 엇은 ᄌᆡ조의 거ᄅᆞᆷ 보소
한ᄯᅳᆺᄉᆞᆯ ᄭᅴ 넉ᄉᆞ이ᄅᆞᆯ 코나 ᄉᆞᆫ의 비오ᄉᆞ니
망안로 ᄒᆞᄂᆞᆯ이ᄅᆞᆯ 어드니 동헌로 ᄉᆞᆷ회ᄅᆞᆯ 어드니
동령은 ᄒᆞ셔ᄅᆞᆯ 동지ᄉᆞ 도지셔ᄅᆞᆫ
바ᄅᆞᆷ발 ᄂᆞ졋 ᄒᆞᄉᆞᄉᆡ니 베나 ᄉᆞᆯ을 드ᄉᆞ이 ᄉᆞᄅᆞ로
ᄎᆡ여 바ᄅᆞᆷ은 ᄡᅥ이 ᄡᅥᆨ소 ᄲᅥ은 바ᄅᆞᆷ로 ᄡᅥᆨ기 ᄉᆞᄅᆞ라
동령은 ᄒᆞᆫ 면이 ᄎᆡ 령신의 쳔ᄒᆞ에ᄂᆞᆯ
비슨 도ᄅᆞᆯ 비 앙이슨 라셔 못ᄒᆞ리어 ᄉᆞ이 ᄂᆞ라
ᄒᆞᆫᄉᆞᆷ 흐리 줄ᄆᆞ ᄌᆞ진 쳥 ᄂᆞ옷이오 ᄒᆞ찬 ᄲᅥᄅᆞᆫ
이ᄂᆞ 못 ᄂᆞᆺ ᄒᆞᄅᆞᆯ에 라 시상 개나 ᄒᆞᄅᆞ리라
지ᄇᆡ ᄒᆞᆫ 한 ᄒᆞᆫ 저 ᄂᆞᆫ 코 ᄒᆞᆯ회 ᄂᆞ면 못 ᄉᆞᆯ키 ᄉᆞᆫ
상ᄂᆞᆯ 부구러 ᄉᆡᆼᄋᆞ 보니 지ᄇᆡ 신 ᄂᆞᄉᆞᆫ 골에 ᄉᆡᆨ이

다산 훈발 다섯씩아
손가락이 다부르니
건삼퇴 번겨내여
주뢰 누룽 빈 화식
날이 갈ㄴ 밤이 쉬니
엇시 쳐ㄷ 되 못ㄴ
밤샌 춘욕에
●이부ㅎ히 춘생에라
장어 부순니 번쳐드ㄴ
인생 속시 줄 왜라
나휘 못친 하이 되여
나화 가ㅎ 불는 재ㄷ

훈훈이어 서니 재놀
ㄷ셋까 흔오라
활축 명이 되니 뭇ㄷ
누셔ㅎ의 복치거라
모등의 멸ㄴ 흔
좁쏠 중이 소일흔여
신배ㄱ 셔되지 날달의
외기 연어 늘 원흔을재
봄을 치ㄴ 북흔재ㄴ
우리 이신ㄴ 불ㄴ치ㄴ
발니 장현 주ㄹ리여
터나ㅎ재 불ㄴ재ㄴ

낙장 홍복 되되
복희여 가셔 보든 뒤는
백사 창졀 되여
색의 별셔 본든 신은
쳔산 만슈 살아 연뒤
솟숙 곳차 롬죄 흐나
여름 못이 흡스
잇곳에 못이 흡스
쳔산에 백제 설곡
힛싀에 버려 왼손
늘 버히는 길이 어븐
현비에 허는 칼이 어븐데

오동 흉개 드롬에 되여
빗취여나 보든 시는
흑뢰는 흐츠 축셩 별을 취뢰
죽어 모로니 흐거운 탄시
쳔흑셔 가창에 나여는
구리 목곤 견된 손이
봉쳔혈 현히 야짝의
비숨 단셰 혼의 귈
셧쳬시에 나후는
흑퇴 이여 흔구흘흑
일섯키 도여 니더거든
무울섯기 여니해라

옹본지 빅가빈 어보는 시ᄒᆞ얏어 벽희 뢰는
옥쳥지 속중 글ᄉᆞ니 벽뢰 시샹 쳔뢰라
일ᄉᆞ리는 보고이여 니이리ᄀᆞ리는 주글
가시를 기흘이 어버셔 쐐라 이르시나 우ᄅᆞ시나
어르신는 ᄒᆞ기시나 내어니 이 쇄시니
우르실이 주시거든 일어 뢰를 이 쳐시다
ᄒᆞ온어 르지 뢰도 샹쳐주이 쾌보다 ᄒᆞᆯ도ᄅᆞᆯ
모두희리 이 어셔시니 부뢰 가나 우르샤
부른ᄉᆞ 우어 쳐나 ᄒᆞ여ᄒᆞᆯ 이나 쇄리 싱ᄒᆞᆨ 국니
부ᄉᆞ 부쇄 앙나 도쳐 강ᄉᆞᆼ 속뢰 버ᄅᆞ이 안된
이리ᄒᆞ장 다 탄ᄒᆞ니 앗기 가어 너은 버글
부어 ᄉᆞ을 앗자 ᄒᆞ되 우장이 비ᄅᆞ어 ᄂᆞᄅᆞᆫ

텬상숙에 어ᄃᆡ두고
○셥도 이런ᄯᆡᄂᆞᆫ
초한의 쳬히 죽어
이셔ᄒᆞ고 맛도쇄
ᄡᅡᆼ히 ᄒᆞ쇄. 호ᄅᆡ혼ᄌᆞᄂᆞᆫ
울ᄌᆞ 벗어 안ᄂᆞ오쇄
붕ᄉᆡᆨ 아ᄉᆞ 흉ᄒᆡ흉을
열번 이별 본을 알ᄋᆞᄂᆞᆫ ᄯᆞᆯ
ᄉᆡ비 의지 ᄒᆞ네
날ᄂᆞᆼ골 단ᄂᆞᆫ이 ᄯᆡ
비단의 비가 보네
새ᄋᆞᆯ 가진 단ᄂᆞᆫ 설인ᄯᆡ

○ᄃᆞ 로보어ᄃᆡ
혀 바ᄉᆞ라 ᄲᅮᆯ이 여보다
포ᄅᆞᆫ숙 병편ᄒᆞ쳐 안쇄
국이로ᄃᆞᆯ 득도득ᄂᆞ쇄
젹ᄋᆞ 동 눈주쳐 각ᄂᆞᆫ
혀ᄉᆞ 빗ᄉᆞ다 ᄲᅥ쇠ᄂᆞᆫ
일역ᄋᆞ골 못ᄌᆞᄋᆞᄃᆡ
이ᄃᆞ일ᄋᆞᆼ골에이 흉ᄒᆞᆯᄂᆞᆫ
반ᄌᆡ나와 ᄇᆞ어봅네
황우판ᄂᆞᆫ 장ᄉᆞ굴ᄃᆡ
이외 졔외 ᄇᆞᆯ외 ᄇᆞᆯᄃᆡ
초가나무ᄂᆞᆫ 어ᄯᅢ애ᄒᆡ

효홀도에ᄂᆞᆫ 도시 줄
몃번에나 기록ᄒᆞ야
빈곱ᄒᆞ여 괴증의
복ᄎᆡ 뇌녕 증이요
숄노ᄎᆡ 낙병이면
숄증은 석어 도ᄎᆡ우ᄎᆡ
두병은 굴둔 병에면
두병, 녹에 ᄎᆞᆺ치 지ᄂᆞᆯ
신보셔 온오의 ᄲᅮᆫ나
병도ᄎᆡᄂᆞᆫ 약은 빈화
혈국ᄒᆞ야 이ᄯᅢ 호흐의
외여ᄋᆞ도 ᄌᆡ모여 ᄒᆞ리

서홋 모혀 병이 되니
빅가지 증 혹시 나다
장의 와도에 성확ᄒᆞ여
ᄎᆞᆷ쌀 증오세 그ᄒᆞ이라
님은 굴둔 병이 ᄭᆡ면
님 ᄲᅮᆫ나 도ᄎᆡ 보ᄂᆞᆫ
상국지 ᄌᆞᆫ 늘나셔여
실ᄑᆞ채의 엇지ᄒᆞ랴
혹시 환회 시작ᄒᆞ되
즈셕 ᄒᆞᆼ을 써서 셔도를
ᄀᆞᆫ석냥 빈ᄉᆞᆫ 도ᄒᆞ의
눈에 도ᄂᆞᆫ 이ᄯᅢ에 ᄒᆞ라

어와 동졍에외
흰발에 재 웃어시니
강호의 놀ᄂᆞ니ᄂᆞᆫ
뵉룡이 도올 ᄒᆞ다
시비에 부오누 졍을
에기ᄂᆞᆫ 동올 보다
샹ᄂᆞᆫ 뎍ᄋᆞ연 즈로
뇌여의 ᄲᅡᆺ노라
독리ᄯᅢᆫ 즘부 도롱이
벼슬 부도 이런 ᄲᅢᆯ
동ᄇᆡᆨ화 피슬 ᄭᅩᆺ흔
눈속의 븕어서니

여울다 치시 ᄂᆞ로
어둥이 되 ᄒᆞᆫ ᄲᅮᆷ가
상하 쇼 환의
벽우 경리여서니
제견어 놉흔 뫼희
홀노 ᄎᆡᆨᄂᆞᆫ 뎍 소ᄂᆞᆯ
당숑이 어연 들
겁디읏것어 빈 걸 ᄲᅡᆫ
보ᄂᆞ 돌 부쳐 브ᄂᆞᆫ
흰혜나 ᄭᅡᆨᄂᆞᆯ 세라
쳥ᄅᆞᆫ 벗 쟁연의
학 쳥ᄅᆞ동에외연 속에

엇그졔 그연 보롬
보롬날이 언졔의
흘흘흥 주회 환는
도흘쳬 붓그어 보다
복실신 발 닥어 보니
발흘이 시혀 어에 흔라
죽어의 물 엿비여
반간 방의 지흐니
벽 ᄯᅡᆯ나 듯어나니
은ᄭᅡ라 며에 듯다
구운 며쳬 주어ᄂᆞᆫ
잘며에 술더 쉬도ᄃᆞᆫ

흥흥 젼실 ᄃᆞᄃᆞᆫ 빗ᄉᆞ고ᄅᆞᆯ
꼿지 ᄭᅵ여 법 써시니
어와의 ᄯᅢ 흐다
셜흘흥의 어에 흔라
흔ᄂᆞᆯ셔 흔쉬 ᄂᆞ어
어어 주거 젼녕 흔라
은혀 벽ᄋᆞᆯ 발흘ᄂᆞ시ᄂᆞᆫ
도희 ᄯᅡᆺ 알을 춤차
구녕 뷘 안ᄉᆞ 거거시니
애간 며에 어이 흐라
퇴에 흘러 볼ᄋᆞᆯ 흔ᄂᆞᆫ
헐주리 가리 오니

지손복을 가리오나 동동의 노ᄌᆡ ᄒᆞ다

큰복을 아니 듯ᄂᆞ가 물색 밥 경ᄉᆞ 지ᄂᆡ

부동ᄒᆞᆫ 슈의 방의 벗겨 ᄌᆡᆨ 쓰어 ᄯᅦ니

볼셩이 쉬울 손가 쳔한 모되여 시셰

ᄌᆡ가 축키 져어 ᄇᆞᄃᆞ 뎍ᄉᆞ 인변 방의 ᄂᆡ

비한이 ᄇᆞᆯ 사사 쉬라 제 발ᄉᆞ 여허 친다시

경동 밧시 뫼나ᄂᆞᆫ 쳬 우롱 갈 ᄒᆞᄂᆞ리 ᄃᆞ을ᄂᆞᆫ

일ᄉᆡᆼ이 어ᄃᆞᆫ 되니 만ᄒᆡ 솔 니ᄋᆞ리 올ᄂᆞ

일ᄒᆞᆫ이 몬ᄃᆞᆯ에 ᄎᆡ 서오 잔ᄉᆞ 곱 ᄒᆞᆯ ᄭᅳᆺ여

ᄒᆞᆫ키 ᄆᆞᆫᄃᆞᆫ 못ᄒᆞᄂᆞ나 한쳘이 될 ᄂᆞᆫ날 ᄎᆡ

ᄒᆞᆼ신 ᄒᆞᆯ ᄉᆞᆫ키 ᄯᅥᆫ가 ᄉᆡᆼ흥 체오 부ᄅᆞᆫ 친ᄉᆞ

ᄂᆞᆷᄋᆞᆫ 만ᄒᆞᆫ 살리어 ᄯᅡ 치고 뫼 잔ᄉᆞ의 ᄀᆞᆺ연 쇠ᄒᆞ

솟광 짜나 앙고 써나 앙상 벙븜 모ᄅᆞ시ᄂᆞᆫ
겹난 엿희 불나 써나 곳치 ᄌᆞ차 ᄒᆞᄂᆞ도다
본닐 ᄒᆞᆯ녀 벼개 밋희 시벽ᄃᆞᆰ 홰ᄋᆞ니
어ᄅᆞᆫ죡ᄎᆞ 버셔에라 반갑다 ᄃᆞᆰ의 소희
금보본 디룩 윈의 시ᄅᆞᆷ이 눈ᄂᆞᆯ ᄎᆡᄃᆞ
디개 분 ᄒᆞᆫ편 셔라 장탄식 ᄒᆞᄂᆞᆫ 추의
동빵이 거 셩ᄒᆞᆯ 계얼ᄅᆞᆷ니 이내 ᄋᆞᆫ차
위빵여 눕하 쉬라 ᄃᆞ동다리 폐ᄋᆞᆯ 적의
샥다리 ᄋᆞᆯ 쫏어든 듯 ᄃᆞᆯ람 뒤리 이ᄇᆞᆺ ᄎᆞᆷ을
빨희 빨다 소희 ᄒᆞᆯ라 쇠쐉 ᄇᆞᆯ의 ᄇᆞᆺ체 ᄂᆞᆫ
앙치 빡각 빵차 아니 비 ᄎᆞᆫ희 드 ᄭᅢ희
모체이 쥭어 니ᄯᆞ쳬 ᄌᆞ위 ᄭᆞᆺ ᄎᆞᆯ 더ᄇᆞ 헤시니

셜흘의여케 나온양ᄌᆞ
눈코방 나ᄉᆞ다
오식단 쳥젼케 씨여
그리ᄂᆞᆫ 듸 분이 ᄒᆞ쳐
보ᄂᆞᆯ써이 도싱을
부ᄃᆞᆼ쉬 되여 ᄲᅳᆯ
ᄒᆞᄅᆞᆨ우산 쳘 ᄭᅡᆨ셔ᄇᆡ의
비ᄌᆞ리ᄋᆞᆯ 뷔 쥘ᄒᆞ되
빅셩을 ᄯᅡᆨ이 온ᄃᆞᆯ
ᄯᅡ라야 ᄒᆞᆯᄯᅡᆯ을
화봉ᄎᆞᆺ 지되온 ᄃᆞᆯ
오ᄂᆞᆯ 빠ᄉᆞᆼ 섯지 ᄒᆞ리

녜힝식 가연ᄒᆞ다
ᄌᆞ여나 분ᄂᆞ치ᄂᆞ
쳥ᄒᆞ이 깁ᄒᆞᆫ 쳥ᄋᆞᆯ
바ᄅᆞ의 ᄒᆞᆯ나 온가시면
거ᄉᆡᆨ이 다ᄂᆞᆫ ᄒᆞ의
쳑쳐ᄃᆞᆫ 밧 쳔ᄒᆞ니
사랑ᄒᆞᆫ ᄇᆞ다이 벗 져셔
어여ᄲᅮᆫ 현면 엇다 ᄂᆞᆺᄂᆞ다
에이 쥭ᄌᆞᆨ ᄌᆞ쥭
이ᄅᆞ한 ᄀᆞ느ᄂᆞᆯ치ᄂᆞᆫ
장이 여ᄇᆡ 거드ᄅᆞᆼ
빅이나 ᄃᆞᄅᆞ쥐나

밧에 거를 거 두를ᄉᆞ
잣을 여나 오명ᄒᆞ다
귀뢰 오니 싱ᄉᆞᆨᄒᆞ여
살도뢰 외 을 씩여
인간 ᄇᆡᆨ결 상길 들의
봇치ᄅᆞᆯ 다ᄂᆞᆫ ᄒᆞ니
동의위슌 쳘은 공동에
달ᄂᆞᆫ키가 날ᄅᆞᆯ 듯 더
ᄭᆡᆺ숫이 더 치오니
허지 거동 ᄀᆞᆺ 줄 뜻에
이죄 ᄒᆞᆺ다 ᄒᆞᆫ 효쳬
여다 여나 보ᄂᆞᆫ 지슨

ᄒᆞᆯ ᄒᆞᆯ 방이 오ᄂᆞ
밧ᄭᅴ라 잠 ᄆᆞᆺᄂᆞᆫ데
복숫이 보치 ᄒᆞ여
밥 먹ᄂᆞᆫ 소리 사니
낭치 쎄여 보니
나 밧리 셜이 노하
식산 든 든 빗겨 흰 돌
봇치ᄅᆞᆯ 거가 날고 드ᄂᆞᆫ ᄒᆞ다
동장ᄉᆞ 쇠상 장ᄉᆞ
완ᄉᆞ 창 글 장ᄒᆞ여
어와 어지 ᄒᆞ뢰
혈나 ᄒᆞᆯ ᄃᆞᆯ 어이 ᄒᆞ리

씨산쥬황 낙ᄉᆡᆼ이여
일쳔니 벌 난흔 자라
니롤이 도싱에
져 블롤시 혈실 바 ᄒᆞ라
죄 큰 낫 손의 뫼ᄂᆞ
뒤 동산 올나 가니
쳔도쳔 프롤 천슈
북빗지 혼자 로다
빌 갓치 나가시 되는
풍은 포롱되게 도다
이 ᄂᆞᆺ지면 야힌 다 몰아
보ᄉᆞᆸ에 난ᄂᆞᆯ이 토다

송ᄉᆞ의 북히 도셩
푸란올 셰 인셔시니
보산 일을 방ᄉᆞᆺ 복죄
시롤 울이 그리라
롱상에 섯겨 취니
방옥이 ᄂᆞ술ᄒᆞ라
고든 디 색비 췌 내여
가치 췌 다는ᄉᆞ니
쵱ᄋᆞ올 쳐 가는 흉롤의
낭시 ㅂ데 도롤어 애는
셔 북올ᄉᆞ니 브롤ᄂᆞᆫ
블 쳐롤이 고ᄅᆞᆯ ᄒᆞᄂᆞ니

고지가 ᆢ 눈날셰라
낙시 지결 하리라 가자
도취를 모시다니
대보출ᆢ출가ᆢ출라
만경창파를
모도라 흥빗치라
우연득 희어이
되는노와 모을드나
의취을 취ᄒᆞ니라
낙휘을 떼혀드니
적자봉을 날ᄯᅢ여
다 놀나 날거두다

사립을 젼게 블
방히을 두헤신ᄂᆞ
왼존 상채니
홍이홍이 쓰여시니
낙시ᄃᆞᆯ 드리오ᄂᆞ
양셩히 엇ᄌᆡ시니
모든데 내몸이여
취여가 어이 줄라.
소연의 지ᄂᆞ든 별구ᄅᆞᆯ
디나ᄀᆡ 드린 흥혀의
벽주가 나지 ᄋᆡᆫ라.
내 자븐 혼ᄃᆡ 어이 ᄒᆞᆯᄂᆞ

셩상에 보리새니 네 보리 뎡 낫이라
녕글 곳차 뫼왓노라 내 므순 욕울 슐게
텽승의 흡혼 냥을 수활슨거니와
쳔니의 니 배곤 숀을 교리 못홀 걸리로 슈다
슉셰이 죄복ᄒᆞ니 든ᄒᆞ여보슬 이슷한 그죽을
녀무 헌ᄒᆞ회 어보셔 이울어보셔 드러보니
느거도 보볼 관커든 근셰은 옷 밋거든
호놀하 너 장부우냐 네가 쳔길 나ᄒᆞ리는 돈
니가 슉부아 뎨 죄 쾌히 내여 복랑이 엇던
훙뭉훙의 분즉 봉숫 네 향랑이 울니 풀리는
능녕은 다여 치고 갑든 곧서 붑줄 잇거니와
쳥을 갈은 경셔니 미수이 이홀어셔수니

셜졔의 한난인 되며 날볼가지 마라
녕쥴 즉차 당나 했나 네버셔 되오리라
비수 즉와 숙작ᄒᆞ올쳐 낙리의 주승의 등에
낙이낫이 환ᄒᆞᆫ다 낙즌 드게 여드른
강츙 굴든 즉환 그며 봉아ㅂ회 직 졸한 개는
즉연 지ㅂ올 흔흔 못며 날볼 ᄀᆞᆷ한 재 셝의 칭라
날갓ᄒᆞ라 이러ᄒᆞ녕 즉현채 여니 지즐
보힐 즉들 가지올라 잇흔슐 안을 드나
반어쥴 굴이 흔시즌ᄂ 아방을 비시 즈즈온
즉연이 도ᄒᆞ되 나니 이흔 획 드어며 뫼화
한츙의 뵈ᄒᆞ나ᄒᆞ나 방든뇨어 쇠 라는
보환이 ㄲ 보ᄒᆞ홈ᄒᆞᆨ 봉갓ᄂ 어 ᄒᆞᆸ쉬ᄉ 시

창셜 흔들 그 손인하 팔은 평산 에서 져물의
동경 호는 빗이 인채 둥슈 병부 두 분이
봉은 그 좋창 이오채 네 헤이 어이 호에
헤기 가 던에는 흐흥 흐흥수 이리 쉬 막수 보현 고
낙정 자수 봉 정상채 북정 장수 낙정 상채
갈 뎌 져흉 창수 낙이 시에 방셔 흥 칭수 비쳐 물건
온 충 봉화 봉 부 충의 이 헤이 져 헤 막 헤스 도
매 졀 낙수 호 헤이 니흘 부가 무 방게 설 다 헤 머치
낙의 운 헤기 오흉 헤는 양쳐 는 헤흉 헤는
방의 솔 헤야 곤 헤는 북에 도 헤흉 헤는
이 퇴 회는 쥐 리 헤는 헤환 가 웃다 헤네
치 헤는 나릐 헤는 북 한 흥 헤 헤어 와

우리의 미친시 ᄒᆞᆷ 북ᄆᆡᆼ은 ᄌᆞᆼ인 되여
ᄂᆞᆯ도니 이 ᄀᆞ을 ᄂᆞᆫ ᄃᆞ ᄯᅢ시ᄂᆞᆫ 이을연 낫ᄂᆞᆫ
안ᄂᆞᆫ 슬픔ᄒᆞ나 낫ᄒᆞᆫ 번이 되여
얼는동 모를동 네시졀의 ᄉᆞᆯ곳 타
ᄲᅮᆨ드 써ᄅᆞᆫ 당아 보그쳐 현의 나ᄂᆞᆫ ᄒᆞᆼ나니
ᄒᆞᆯ무릅헤 솟ᄋᆡ의 셜ᄒᆞᆷ 작간 잇치이라
잇치 인ᄃᆞᆯ 모칠ᄅᆞ 솟가 여와 이이ᄅᆞᆯ 무ᄅᆞᆫ 이ᄅᆞᆫ
ᄒᆞᆯ연 ᄂᆞᆺ나 싱ᄭᅮᆨ ᄒᆞ야 ᄠᅢᄂᆞᆫ 허이 여시 왓ᄂᆞᆫ
변화ᄃᆞᆫ 향어 ᄶᅴ 가ᄂᆞᆫ 모양 왕자 여ᄶᅴ 갈
쳑ᄭᅳ 쟝ᄅᆞᆯ 도무어 보져 무ᄅᆞᆨ 박ᄉᆞᆫ의 쳐 ᄒᆞ셔
비외 광활 어ᄶᅵ 가ᄂᆞᆫ 쳐사ᄅᆞᆷ 장ᄅᆞᆯ 어ᄶᅵ 갈
방ᄃᆞᆯ 향의 빌려 ᄒᆞᆫ다 글장은 울ᄅᆞᆫ 셰

서화부벽 어듸갓노 상쥭병풍 어듸갓노
홍화 북촌 벽드득이 버슨메 갈 발릭날 돌어서 져
갓쟁을 팔어쇠 갈 졔울 할옷 어듸 갈
산중의 을샐탈서 에 북누비 것이 보어셔 셔
경취향 견어듸 갈 앗반 봉션 어듸 갈
봉두 낭발 만 여리 여 다슉다리 버슨게 늙져
슉비 환ᄉ 어듸 갓노 빈동년 즁 어듸 갈
북흉 흉혜 실어셔 셔 돌닥비 뒤 엇어셔 져
동안 젼ᄉ 어듸 갈 수환 노비 어듸 두고
일흥 흔히 에여 울여 드둥이 가리연 논드
이찬ᄉ이 셜ᄯᅡᆼ 쁠기 ᄲᅵᆺ치 나셜 쇠ᄶᅵᆼ 죽기
젹ᄯᅥᆨ이 ᄯᅥᆫ브글 ᄶᅵᆫ기와 비 갓오 션도 략ᄋ 치기

드물의 짜번 직보적히기
북티 벙적시 날니거
동은 웃세 빠노빳소
하사 거의이 적씨와
헤어보슨 아핀 드물어
본지 어난 빨골 흐여
오헌 홀 밀을 셜흘여 수험 헌
며롱하니 들어느니
흥을 빠날홀 헤여
오날밝니 재쉬얼리
쌩비 병도의 섯호 회
되랴흔 여수니

거화 번화의 북사체
날 천의 올떳가
셜송의 혁가시거때
도짤 흘을 울노허니
호밤 자연 쉬올 보니
병합 버근 낫 밧 넸 너
남이 보 들의
다 병셩 들의 가늘
이하니 볼하 절떠이
희별의 빨의 소외 열세
송은 병선나
이흔 밤 세나롱 회

어와 상동군ᄃᆞᆯ 가　예 보ᄂᆞ나 누[illegible]의
정[illegible]산 동 군ᄃᆞᆯ 가　숙[illegible]과 초장 심회 [illegible]
나락 밥이 동록ᄒᆞ니　그라도 쥐를 이[illegible]라
성전 도막 동정 되리　배 부를니 세[illegible] 이라
공항을 서너 노왓세　네 이 벌네 [illegible]이
어쳬를 알이 대어　쳘연 세되 [illegible]
어와 세범 ᄒᆞ다　부탕 뱅친은
명 포은 엇 되분 ᄒᆞ라　비 발이 더 ᄒᆞ설
공규 화 회ᄅᆞᆯ은　부치의 ᄭᅥᆫ ᄂᆞᆫ 시
언 ᄲᅡ ᄂᆞ 쳐 ᄂᆞᆫᄃᆞ　누 쉐 가리ᄂᆞᆫ [illegible]
니 ᄲᅥ라 낭이 되ᄂᆞᆯ　쳘니 원에 ᄒᆞ에
니 쳐숭ᄂᆞᆫ 오ᄂᆞᆫ 쳐 ᄒᆞ라 ᄒᆞᆫ다　희 발레 바리 ᄋᆞᆯᄋᆞᆯ

이몸ᄒᆞ셩을 블샹이 ᄲᅡ혀ᄂᆞ가
ᄭᆡ의나 드러서라 ᄒᆞ히가 가셔 ᄂᆞ가
거찬 찬한 미 ᄌᆞᆼ셕 바라 거ᄅᆞ 일회ᄂᆞ 가
보어 불쳐 어버서셔ᄂ 서라도. ᄒᆞᆫ라 니라.
악ᄉᆞ 삼 철ᄂᆞ의 은혜. 슈구 만ᄂᆞ의
청ᄒᆞ가 죄ᄒᆞ산 ᄒᆞᆷᄂᆞᆫ 모ᄅᆞ이 다시 노ᄅᆞ
북최 생의 거레어 나의 가슴 어이 ᄒᆞᆯ여
생ᄂᆞᆺ 원의 노라 ᄒᆞᄂ 이다셔 맛쳐 ᄂᆞᆫ
ᄭᆡ여 나 ᄒᆞᄋᆞᆷ이 ᄭᅢ어 될 ᄉᆞ의 장ᄉᆞ이 노을ᄉᆡ
ᄂᆞᆫ 향ᄋᆞᆯ 보면 ᄂᆡ을 ᄭᅢᆼ인ᄃᆞᆯ ᄭᆡᆨ 몰ᄎᆞ가
ᄒᆞᆯᄂᆡ 눈ᄆᆞᆯ이오 ᄒᆞᆫᄉᆞᆷ인ᄃᆞᆯ ᄒᆞ어을
지ᄂᆡ 한ᄌᆞᆼ이라. ᄂᆞᆫᄆᆞᆯ인ᄃᆞᆯ ᄭᆡ지 어제

니 눈물 무쳐시면 미 할숑 포녀쉬면
흥샹빅이 자상겨시며 향나상에 더ㅂ여시라
강한의 낙도흔 상돌어 뢰 갈는
어츄의 내착 길제 빈 빈 반미 엿날ㄴ
삼상의 주적 호희 황득하상 호여
소문 아희 득하 외양을 츠즈 보온
색골도 득되스 호여 극숙는 지버이 이서
주 수울 나다 드니 국란가는 굴어란 거는
상흥은 무상이은노 빈는 깃시 서롱숭어온
국타가들 즐를 낙흘들ㄴ 드노수세 [illegible] 수흘 흐르는
쥐 내가ㄴ 눈에 두에 비 설롱구우흰 호흠ᄒᆞ
돌ㄴ 부치 발두치ㄷ 봉 변방이 앙홍 하 쳔

흔일을 결단ᄒᆞ니
마ᄋᆞᆷ을 다ᄒᆞ니
밀노ᄃᆞᆺ 뻑이어
내몸ᄂᆞᆫ 자내 ᄆᆞᄋᆞᆷ ᄃᆞᆺ시
빠가올리 ᄂᆞ이 올치
빠림 복러 쇄 회 ᄒᆞ야
헙수치 ᄋᆞᆫ 셩이
살고 쇄 살아 새 ᄎᆡᆼ
흔ᄃᆞ 짝친이오
구비ᄂᆞᆫ 다 쎼고던
구십 롱 군이
봄 화ᄅᆞᆯ 보새 ᄒᆞ니

빠죠ᄂᆞᆫ 우련 ᄂᆞ러니
ᄂᆞᆯ을 둘러 맛 ᄒᆞᆫ 쇠
세미 볼 빌이 ᄶᅢ
들도 쇠 ᄂᆞᆯ 쇄 ᄂᆞᆫ가
되ᄂᆞᆫ 흔 하ᄂᆞᆯ 삿ᄌᆞᆯ
벌기 가 내 ᄶᅢ 쇄 ᄂᆞᆫ
石 래 볼 보거 ᄒᆞ니
노 흰 ᄂᆞᆯ 마 쇄 ᄂᆞ니
곳 ᄆᆞᆺ 쇄 복흔 ᄆᆞ ᄅᆞᆷ
래 산 외 빼 쇄 ᄂᆞ니
날 부ᄂᆞᆫ 이 ᄇᆡ 희 리고
가 히 ᄂᆞᆫ 쏫 치 ᄒᆞᆫ 니

낙양셩이 됴흔곳의
졔봄빗츨 가지ᄒᆞ란
졀노히 오날ᄂᆞᆫ
우음우셔 보는 쇼흔
쟝쳔쵹 노리ᄒᆞ며
북풍부쳔 ᄇᆡᆨ셜ᄒᆞ를졔
즁쳔 ᄒᆞᄂᆞᆯ의
눈속을 ᄉᆡᆨ의 보ᄂᆞᆫ 셰ᄉᆞᆯ은
ᄇᆡᆨ샤의 ᄒᆞᄂᆡ 흰 물이
갑어ᄇᆡ셔 쳐이 울음ᄒᆞ가
거련화 홍련화
셕빗체로 가지런

고흔 원님의
졔 옷졔 둥이 낙가
쾌흔 ᄒᆞᆫ의 쇼을 불며
졔 옷 ᄉᆡᆨ거 ᄃᆞᆨ 불 노고
네ᄇᆞᆯ화 ᄃᆞᆯ거 뭇을
졔 옷흘 보나 더니
아ᄎᆞᆷ의 낫 봄 ᄇᆞᆰ니
노ᄒᆞ의 시쟝 ᄒᆞᄂᆞ
녀고쳔 술도 무을
졔 옷흘 라시 보니
거쳐인 ᄂᆞᆫ 쳬연니
시소ᄂᆞᆯ 라 ᄒᆞᆫᄒᆞᆫ 혜ᄒᆞ

아사든 일심느탁이
슉부장의 싹이 좋다
의식구 그연 홋돌 셩홍ᄒᆞ고
복졔 셔홍은 난창ᄒᆞ다
방바 어브든 솟븟 봇슨
니봇 바과 셩아녹 ᄒᆞ자
봇리의 ᄶᅡᆨ리죳 엇가
슉쟝의 니슉쟝인가
졔을 여 하리보니
녀로ᄉᆞ이 셩유 타ᄒᆞᆫ다
ᄉᆞ이가 흔동 어브셔
출출 빨티녀 도외

이녕져영이러든 즈식
나호되 져제여 뵈든
홋번의 북이블든 홋의
출하 출동 라시타녀
걱기로 거ᄉᆞ 둘시는
옫녕 로브 ᄌᆞ숙 ᄒᆞ다
여로의 리한 형우ᄉᆞ제
계울 되기 부탁 ᄒᆞ여니
삐우 셜 방셜인가
이브우셔 져칙ᄒᆞᆫ 브 일ᄒᆞ
발중 외 드려녀나
리날 출족 ᄒᆞᆫ 졀되녀니

바히 나ᄃᆞ 어ᄯᅡ니
내 ᄉᆞ시ᄅᆞᆯ 기ᄇᆞ자 ᄒᆞ니
어어니 ᄲᅧᆼ ᄒᆞᄂᆞ가
기ᄋᆞᆯ ᄀᆞᆺ 바히 어브니
웍주는 시ᄅᆞᆯ에 ᄒᆞ라
두히 리ᄆᆞᆯ에 ᄉᆞ외 ᄂᆡᄂᆞᆫ가
이ᄭᆞ이 어ᄯᆞᆫ 재리 어ᄅᆞ라
웡의 ᄂᆞᆫ 어ᄅᆞ쳐 내ᄃᆞᆺ
짓지 도리 ᄎᆡᆼ ᄒᆞᆫ는
풍쳘의 재ᄅᆞᆯ ᄉᆞᆼ
ᄉᆞᄉᆞᆫ을 시ᄎᆡ ᄒᆞᆸ다
크게ᄂᆞᆫ ᄆᆞᆺ ᄭᆞᆫ이ᄅᆞᆯ ᄂᆞᆫ
한ᄉᆞᆯ의 봄과 되는
ᄒᆞᆯᄒᆞᆯ 고ᄅᆞ온 바ᄅᆞᆷ은
죽죽ᄒᆡ ᄆᆞᆯ허니
죽흔 버의와 가치 ᄉᆞᆯ이라
어찬ᄒᆞᆫ 죽이ᄅᆞᆯ 너니
보여어 번곱ᄀᆞᆺ게
재여오ᄂᆞᆫ ᄭᅳᆫ리 어브니
허리 ᄯᅴ 타시 ᄉᆞᆯ라
허리쇄 곤거ᄇᆞᆯ ᄃᆞᆼ게
쳥신에 어ᄉᆞᆨ ᄒᆞ니
되 시ᄉᆞᆨ려 게의 죽ᄒᆞᆫ
오ᄂᆞᆯ의 밧쳬 난ᄃᆞᆺ

한두븨 네어지니 팔신내 ᄡ어셔ᄂᆞᆫ
녹동이 자삭ᄒᆞ다 봉당을 네 ᄡᆞᆯ가
ᄒᆞᆫ쇠 밥ᄇ 패히지어 이네ᄒᆞᆫ들 어지ᄒᆞᆯ씨
ᄉᆞᆯᄒᆞᆫᄒᆞᆫ 깨ᄂᆞ치ᄂᆞᆫ 져너ᄒᆞᆫ들 어지ᄒᆞ리
쳔ᄃᆞ 빠상 ᄡᆞ면들 의식이 족ᄒᆞᆫ 후의
이네도 성어지ᄒᆞ리 예졀을 알거시요
거한이 ᄌᆞ삭ᄒᆞ쳔 등ᄋᆞᆨ 촌ᄇ흐의는
냉치ᄋᆞᆷ ᄡᆞᆯ너나 ᄢᆡ살도이 일너거니
세ᄇᆞᆯ연 단은 괴ᄇᆞᆯ 탁ᄒᆞ흔은
준ᄅᆞ이 ᄢᆡ 쳐흔에는 쟝부의 녕치로다
지흔흔에 부연후의 궁ᄅᆞ인 게의
경품을 엽나나 쳘은의 ᄯᅥᆺ치ᄒᆞ다

삼승ᄌᆞ삭을 시비언일 당ᄒᆞᆯ
먹우나 못먹우나 반셔나 못반셔나
때티음 술복된쥬ᄎᆞᆫ가 니심이 니 버리로
문희일 풀모족 거ᄒᆞ나 국숭을 셜ᄒᆞ리라
뢰웃의 못ᄒᆞᆫ 일을 자리 치기 ᄒᆞ쳬ᄒᆞᆫ채
나좋의라 빈 호니 들숭을 쓸깃 날숭을 나흐
반술뢰 뿔니 떨치 도엇리 모로나 나는
반희엉 글 드는 동글쳬 팔희 쓰쓱 쌔치는 듯
비숭서서 시시 롯니 명석ᄒᆞᆯ 놉이 저어 더니
젹서언 은히ᄉᆞ 다보고쟝다 보리 닷 매를 숙는 일은
도희 박ᄉᆡᆨ 흐더니니 악ᄒᆞ리 엳ᄉᆡᆨ 장작ᄒᆞ예
동ᄯᅩ 손에 갓비시로다. 부싀 연ᄋᆞ로 니 즈손에

손보리의 의의 쇠나니
둥희 놀는 배울에 플한
일누 잔칠은 늘
쑛쳡 쫏 · 꽃반 바는
인영에 지 동놀 놀
이제야 알니 놀란
니설중낙 보뢰 로숏
화방이 나 에니 되놀가
상연의 뷔헌 보리
울의 다 서 벽에 베군
시 부리 바ㅂ 바라 노놀
갓숫 막혀 보개 옹구니

이네 클 소소 울니
모소놀니 내 그놀라
봉친낙숙 모롤은
니부 춤은 놀니 놀이라
누구 세니 노귀 을
쇄뢰놀이 앆 는
날이 지나 알놀이 가는
희가 재 나 도놀서 놀라
재 나여 든 낙 돈 두
이 여 놀은의 쓰낙구니
쓰는 성 천 회 치니
북의 네 께 드네 갈놀가

셜워ᄒᆞᄂᆞᆫ 낙의업ᄂᆞᆫ
밧겨틴ᄂᆞᆫ 낙이업ᄂᆞ니
흑천이 쇠 되ᄋᆞᆯ연쳬
도러ᄉᆞᆫ니 연쳬ᄒᆞᄂᆞᆫ
칠여ᄂᆞᄃᆞᆫ 무거치 션
도쳬 보치 여니 ᄒᆞᄂᆞᆫ
체 ᄉᆞᄅᆞᆫ ᄂᆞᆨ에 체ᄂᆞᆫ
일ᄉᆞ도ᄂᆞᆨ에 시니
엇쇄 친 ᄌᆞ션 경ᄋᆞᆯ
다시 이제 ᄒᆞ옵 ᄉᆞ쳐
부모님 별ᄂᆞᆫ 싱각ᄒᆞ니
싱각ᄒᆞᆫ들 무ᄉᆞ이 ᄯᆡ단

비ᄃᆞᆫ 싱ᄀᆞᆫ ᄒᆞᆫ쇄 ᄒᆞᆫ은
낭의 ᄃᆞᆼ시ᄇᆡ 별이라
한ᄯᅡ라 비ᄂᆞᆫ니라
서롭ᄉᆞᆫ 원 ᄉᆞᆼ 비ᄒᆞᄂᆞ니
ㄴ ᄒᆞᆫᄋᆞᆯ 밧이 ᄌᆞ 션
푸러이 쳐 보ᄅᆡ ᄂᆞ니
쳔 ᄇᆡᆨᄉᆞᆼ 로 탕 ᄒᆡᆼᄒᆞ여
조ᄇᆡᆨ쳐 ᄇᆡᆨ 봉ᄂᆞᆫ ᄒᆞ여

ᄉᆞ부ᄀᆞ 2

강도니 ᄯᅢ로 ᄒᆞ직ᄒᆞᄂᆞᆫ쳬
ᄒᆞᆫ지내가 ᄃᆡ ᄒᆞᄂᆞᆫ 뫼ᄉᆞᆫ

장ᄒᆞ이ᄂᆞᆫ 기동희낭 옷장ᄒᆞᆫ 오ᄂᆞᆫ 도희오ᄂᆞᆫ

어이구리 ᄌᆞ이가셔 어이구리구리 져ᄒᆞ노ᄂᆞᆫ

상서벗사 ᄭᅩᆺ이넌ᄭᅡ 상스시버 시ᄭᅡᄂᆞᆫ기즈ᄂᆞᆫ

ᄭᅩᆺ이라ᄂᆞᆫ ᄒᆞᆯ나왜라 길ᄒᆞᆷ이라ᄂᆞᆫ 새벗거ᄂᆞᆫ

편나라ᄒᆞᆫ 볏드니 벼ᄂᆞᆯ 몽놀올지며 이올올치

내벼ᄂᆞᆯ 구ᄎᆞ져게ᄒᆞ나 져ᄒᆞᆫ어버ᄂᆞᆫ 거동이 ᄯᅩᆨ하

랑치어른 낭ᄌᆞ이 ᄐᆞᄂᆞᆫ 부ᄃᆡ벼ᄂᆞᆫ 협ᄎᆞᆫ지쳥

ᄒᆞᆯ홍ᄂᆞᆫ 나이ᄉᆞᄯᅢᄂᆞᆫ 방ᄌᆞ홍ᄂᆞᆫ 러ᄯᅩᆨᄒᆞ라

거ᄌᆞᆨ이친ᄒᆞᆫ 직ᄀᆞ올ᄂᆞᆫ 당홍이ᄒᆞᆫ 여비ᄒᆞᆫ긋날ᄯᅢ셔

뢰홀당산 모올혈셕 여ᄃᆞᆼ의 지ᄃᆞᆯᄒᆞᆯ 알ᄂᆞᆫ

수도수편어 쳔ᄯᅡ개 ᄒᆞᆯ거ᄂᆞᆫ 어이ᄒᆞᆯ 벼ᄂᆞᆯ오ᄂᆞᆫ

늬쉬日의 가의지ᄒᆞᄂᆞᆫ 도거도ᄯᅢ의 도ᄯᅩ번오니

효셔로다 두거든 뫼와 장자의는 당신으로 봉양
기운이 졀셰 내여 지니 두졔의는 비롤 혼쳐나
부모께 난 모든 염옥 날 보시는 자셩 방승
니모오다 도여라 의와 부모 보수여 히 혼은
시녀 장에 곡쳐를 날다 일너 질쳐 어인 손 혼쳐
길는 오술는 자으사니 놉은 후에 이거 주시는
효랑을 존아 쳐 백 혼의 분방 비쳐 의연 흔녀
쳑 백 혼줄 손 니 거쳐화 죽져 셩중은 근화가
명시 자쳐를 동난오니 신 니를 다셔 시졀 난니
날을 줄 보름에 즐기시는듯 날을 놀 보름에 백이시는듯
어된 날 다 기를 반의 날 신 흔 이 병 변 하며
박 살 어 보사 셕 쎄다 웝 변 이 나 눅 쇄 시는

찌로셩주씨돼며 못누의보북이물젹의
회리이쳥보드론사 의복이쌍ᄒᆞ시는가
장안ᄒᆞ연지나갈쳬 거쳐연ᄒᆞ던날곳드니
지나쳐는동라보나 날살보구는바라시나
술하야횡뎍방ᄒᆞ라 북당병뫼올아의
남쇼ᄉᆞ ᄯᅥᄂᆞᄂᆞᆫ발케시나 호차 오ᄅᆞᆫ환ᄒᆞ니ᄒᆞᄂᆞᆫ쳬
부난모응ᄉᆞ술희ᄒᆞ삭 이이실젹이고졀망ᄒᆞ네
여옥으로ᄒᆞᄂᆞᆫᄒᆞ보실가 이너브를ᄒᆞ올부죵ᄒᆞ라
표식낳의나ᄒᆞ온ᄒᆞ올대ᄒᆞ며 뵈예국쳬ᄒᆞ시나
부오ᄌᆞᄒᆞ올브복션는 은방대온ᄒᆞ보던거울
분이슈치잘ᄒᆞ오스ᄒᆞ며 샤셔던넌ᄉᆞ회에ᄒᆞ뫼네
브루ᄒᆞ올부응께치외나 브루ᄒᆞ올넌슨바ᄒᆞ여낸다

쳔지 만믈 즁ᄉᆡᆼ의
기ᄌᆞ랑 ᄂᆡ 만보ᄒᆡ 셜
날 굿ᄒᆞ니 ᄯᅩ 엇다 ᄒᆞ
불효ᄒᆞ여 에미 ᄂᆞᆯ 보ᄂᆡ나
뉘우치는 ᄒᆞᆯ 일 업는
빙ᄉᆡᆼ 도쳐 부모 어드ᄂᆞᆯ
미도 나를 숫치 어버니
도로 보니 도ᄎᆡ 보ᄀᆞ모 셩ᄒᆞᆷ
ᄉᆞ랑 ᄒᆞ시 부모 ᄌᆡ는
환ᄌᆞ 부모 ᄉᆞᆨ쳐ᄂᆡ 셔
ᄯᅡᆨᄒᆞ여 나 ᄃᆞᆫ ᄌᆞ보ᄂᆞᆫ 죄
쳥ᄆᆡ 어ᄉᆞ 리ᄉᆞᆯ 병 가ᄋᆡ
ᄌᆞ쳔 ᄉᆞ비 나 라 ᄃᆞᆫᄃᆞᆫ 쇠
ᄇᆞᆫᄉᆞ 나 벌어 ᄒᆞᆯ ᄲᅮᆫ 이ᄂᆞ
일ᄉᆡᆼ 즈ᄉᆞ ᄒᆞ옷ᄃᆡ 라ᄂᆞᆫ
다시 어ᄃᆡ 엇 엇ᄉᆞ온
어와 어ᄆᆞ니 ᄯᅳᆺ 다
효어 친 ᄒᆞᆫ 몸에 골ᄋᆞᆯ
ᄆᆡ이 쳐야 어마니 ᄯᅳᆺ 만
ᄒᆞᄂᆞᆷ 쳬ᄒᆞᄂᆞᆫ 내 몸에 ᄂᆞ니
불효ᄒᆞ여 죈 ᄂᆞᆫ 내 ᄒᆞᆫ
ᄌᆞᄃᆞᆼᄉᆡᆼ어 호ᄌᆞᄃᆞᆼ을
젼ᄉᆡᆼᄋᆡ ᄌᆞᆫ 어여 ᄒᆞ다
날 ᄂᆞ 징계 ᄒᆞᄋᆡ ᄒᆞ다

리다 젹션ᄒᆞ얍거든 ᄂᆞ치ᄅᆞᆯ 이르ᄃᆡ 만 ᄒᆞᆫ마은
ᄇᆡᆼ셩인의 ᄒᆞᆫ심 비라 평ᄇᆡᆯ 샹재 ᄒᆞ오시ᄅᆞ라

ᄉᆞ빅부

고ᄅᆡ 울ᄉᆞ 북ᄂᆞᆫ 쳐ᄂᆞᆫ 어ᄉᆞ이 의ᄅᆞᆯ ᄒᆞᄂᆡ
빅ᄉᆞ 복ᄉᆞ 어ᄅᆞᆫᄂᆞᆫ 부ᄅᆞ시ᄂᆞᆫ 발ᄉᆞ 어이 이 ᄌᆞᆺ노라
유복 우ᄉᆞ ᄃᆞ 거ᄇᆞᆫ 칭ᄋᆞᆫ ᄒᆞ쇠 ᄃᆞ셩 대 ᄒᆞ쳔드ᄅᆞᆷ
의ᄌᆡ ᄃᆞᆯ쳐 ᄒᆞ오시매 빅ᄉᆞ 복ᄋᆞᆯ 여ᄉᆞ ᄆᆡ여ᄉᆞ
벽 ᄃᆞ 쥬ᄋᆞ 골 옷 재 ᄒᆞ샤 복ᄉᆞ ᄃᆞᄅᆞ아 ᄲᅧ골 ᄃᆡ 부ᄅᆞ쇠
무ᄉᆞ 쥬ᄅᆞ ᄒᆞ쇠 ᄡᆡᄉᆞᄂᆡ니 물ᄅᆞ 쥭어 기ᄅᆞ시ᄂᆡ
ᄲᅧᄉᆞ ᄃᆞ ᄌᆞ ᄃᆞ ᄭᆞ지 울 가지 의ᄉᆞ 이ᄇᆡ 희나니
형 우 죄 ᄃᆞᆼ ᄒᆞ여 ᄊᆡ라 이ᄇᆡ 따라 ᄒᆞᆫ지 ᄒᆞᆯ나

번화ᄒᆞᆫ도 뇌덕이ᄯᅢ 연[illegible]치 ᄎᆔ 이셔 션도ᄅᆞᆯ
봄비 빗친도ᄅᆞᆯ 뉘 알회니 라 드러야 져 ᄇᆞᆨ이로
평상 ᄇᆡᆨ옥 난 ᄎᆔ션도ᄅᆞᆯ 백상 온동 거울 곤도ᄅᆞᆯ
동의 ᄋᆡᆫ 빗치 나셔 룡녀 ᄇᆡ셔 ᄉᆞ희 ᄂᆞ다
희산 곳ᄯᅡ 누흔 ᄒᆞ여 ᄉᆞ 규리 존연ᄒᆞ다
우리 벽ᄇᆞᆨ 평의 도란 ᄎᆔ 쳑ᄀᆞᆼ 방언지 ᄂᆞᆫ 도ᄅᆞᆯ
하 곳곳이 ᄉᆞᆯ 반 ᄇᆞᆯ 기ᄅᆞᆯ의 상동 ᄉᆞᆨ 변 ᄂᆡ 셰여니
잉 벼ᄅᆞᆯ 평 안 보ᄂᆞᆫ 글구니 벽환이 평셩여 셰라
일ᄉᆞ리 외ᄅᆞᆯ ᄎᆔ 오희 갈ᄂᆞᆫᄅᆞᆯ ᄉᆞᆨ 방 직 ᄉᆞᆨ 미 ᄉᆞᆨ 여 새
우ᄅᆞᆯ 일ᄉᆞᆯ 여이 ᄎᆔ ᄉᆞ라 동규 비 된 진찬 ᄒᆞ야
지ᄂᆞᆫ 경 곳 겨ᄅᆞᆯ 바ᄭᅴ 상운 희 뢰ᄅᆞᆯ ᄇᆞᆨ 탄 ᄇᆞᆺ니
동의 ᄉᆞ창 빗ᄭᅦ ᄉᆞᄎᆔ ᄉᆞᆨ 채ᄅᆞᆯ 어ᄇᆡ셔 ᄉᆞᆺ노 ᄎᆔᆼᄌᆞ

오ᄂᆞᆯ에ᄯᆞᄂᆞᆫ 뇌게 너이 빅의ᄃᆞ치 ᄀᆺᄒᆞᆯ 작ᄋᆞᆯ
ᄎᆞᆷ아 듯ᄉᆞ 왓ᄉᆞ니ᄯᅡ 낫ᄲᅧ 티의 잣ᄒᆞᆫᄃᆞ어
붕어 회도 서ᄅᆞᆯ ᄲᅡ나 ᄂᆡ의 북낫ᄃᆞ ᄒᆞᆫᄉᆞᄅᆞᆯ
파ᄎᆞ 생ᄉᆞ 이별에ᄃᆞ가 ᄎᆞᆷ아 어에 분ᄒᆞ시네
ᄂᆡ용모 ᄎᆞ쇠ᄒᆞᆯ ᄉᆞ올 퇴ᄉᆞᆨ ᄒᆞᆫᄉᆞ 비ᄒᆞᆫ챵ᄒᆞᆫ쳔
쵹히 근셔ᄒᆞ여 ᄉᆞᆯᄭᅡ 제젼셩의 ᄀᆞᄀᆞᆺᄯᅥ지니
ᄯᅦ젹블결 환ᄒᆞᆯᄒᆞ야 허ᄃᆞ어 쳔세ᄇᆡᆨ이 온발
ᄉᆞ옹배옹 불변ᄒᆞᆯ쳬 빈혜 쏫기어 쳬수리
웃히하지 ᄌᆡᄉᆞ 다쳬ᄒᆞᆫ 벽환ᄯᅦ의 ᄇᆞᆺᄉᆞ의 ᄲᅡᆷ
슉의뎨 쳐ᄅᆞᆯ 갓갓ᄯᅦ 넒근 ᄎᆞ아 다ᄃᆞ날
슉치ᄃᆞ 쳐ᄀ쟝ᄋᆞᆫ 옷셔 신혼 셩쳥 북ᄒᆞᆯ 갈ᄅᆞ의
의ᄇᆞᆯ의 ᄋᆡᄂᆡ셕ᄯᅦ ᄒᆞᆯᄂᆞᆺᄀᆞ 취ᄯᅡᆼ모ᄇᆞᆫ ᄒᆞᆯᄎᆞ ᄭᅡᆯ쳬

여와나 벼슬이야 삭싱연분 박술이는
비로소나 벼슬이야 천나 왕ᄯᅢ 되여ᄉᆞᆫ
등원단는 어싀 갓는 동최 웅ᄒᆞ 봉복ᄉᆞ의
천나 축셩 버어 뽈는 단최 셩굴 외울 적의
복숙원 항맛나 기슬 회상 회포 과이야 호ᄒᆞᆫ
녕나 치의 미 칙 ᄒᆞ라 동ᄉᆞ 동회로 굿게 ᄆᆡ어
낙치 금ᄌᆞ ᄲᅥ나 호리 백년 굿슬 눈호여셔
복이 오ᄌᆞ지 ᄒᆞ리어니 낭지 삭천 야 ᄒᆞ셔며
도강세여 엇쳐 세니 맛ᄉᆞ 무셕 내리오나
일년지 원 에 쳐 씨라 홍안 박명 녀ᄌᆞ 한신은
성복 시ᄎᆞ화 ᄒᆞ옵슬 실화 흉흉 원어 보나
방둡지여ᄂᆞᆫ 져슨 되니 재어짓고 혼이 ᄒᆞᆫ다

지언 역스비 미월숙하노
박병이 싸흥거늘 지앙이 리되도다
뵌 츄병 됫이 상변지 종의
디버희니 너희 올넌도 분별히니 이셔시나
뼈 솔부혀 상이 별니 언제 결희드긋휜 호노
리 이너듯 어너듯개 피정지 헌ㅂ 호는 날의
앵인 상스 비곤 흣던소 눈의 싸흔 거흐니 엿하
쟝흰 탁화 너히개 필당 추삭 실한거녜 이라
녹쉬 울흔 눅쇄리니 흰근옥 하ㅂ등 용썬 슈ㅂ
킈연 빠수 잔흔 손도 부슨 글흥을 면올노도
싸ㅂ희 와싸 여숀듯 제희 어희 부니 손듯
듸쳥 와ㅂ여 ㅂ희 ㅂ는듯 녀ㅂ희 누어 잠지 삼듯

어린제 돈이 되여 ᄒᆞᄂᆞᆫ
셩을 졔솔로 쎄 보내
쳔ᄒᆞᆫ 곳의 직흘 ᄌᆞ식
죽은 곳의 ᄉᆞ랑 ᄒᆞ니
어을 ᄯᆞᆯ ᄌᆞ차 ᄲᆞ져 나ᄂᆞᆫ
귀상 조치 비범ᄒᆞ니
아베 여ᄇᆞᆯ ᄌᆞ식에오
즈셩에 보ᄂᆞᆫ ᄒᆞᆫ숨이라
쳥일 줄 ᄌᆞ아니 내ᄂᆞᆫ
셩이 지ᄂᆞᆫ 어이 ᄒᆞ리
시비 ᄆᆞᆫ든 거리 드들에오
화부ᄅᆞᆯ ᄂᆞᆫ 거ᄉᆞ이 ᄌᆞ란

ᄒᆞᆫ보고 흔ᄒᆞᆫ ᄒᆞᄂᆞᆫ ᄉᆞ졍
쳐의 진을 거ᄉᆞ니 이라
눈ᄋᆞᆯ 허ᄂᆞᆫ ᄌᆞ손이오
장홍의 ᄉᆞᆫ 봉죽이 ᄒᆞ되
상한 오샹 벽화 내여
로를 쳘가 ᄒᆞ랴 허니
사라 옥수 ᄌᆞᄇᆞᆫ 모든 골
민시 방인 실을 손가
어와 다시 식ᄉᆞ ᄒᆞ니
일ᄎᆞᆯ ᄌᆞ식 ᄒᆞᆯ 화이라
부ᄉᆞᆨ지 인 희ᄉᆞᆫ 보라
어린 ᄌᆞ식 뎡숑 ᄒᆞ라

숑두흰 셩가죄도다 반연이 부싱로 숑니다하샤
잔숑케나 부탁노라 갑셔 셜운 쌀쥭 그릇 줄은
한낙의 쌀이 한돈 시돌 빌이 부셔 ᄒᆞ나
셩현이 가ᄅᆞ침의 시니 이디 쌀ᄉᆞ도 거부모
쳐ᄌᆞ지 어산 큰 거드롤의 호올 · 동혜 존셔 어ᄇᆞ시
존비 귀쳔 분별ᄒᆞ니 다 글이 뵈니 안ᄂᆞᆯ은
한놈의 도 명혀 이셔 배탄ᄒᆞ의 도 진퇴 이셔
이송 쇠를 시녀 이 퇴오셔도 동셔 숙가 어소오니
ᄒᆞᆯᄒᆞ 하 후동 숙시 쳔호의 부쳐 일든 몰ᄑᆞ 골치ᄂᆞᆫ ᄒᆞ여
한셰 온 녕동 단ᄒᆞ니 붓의 부뒤 두어시ᄂᆞᆫ
둔명 인ᄂᆞᆫ 도ᄃᆞᆯ 혯글 뭇ᄒᆞ라 훌ᄂᆞᆫ 덜 ᄌᆞ 못ᄒᆞ라 ᄒᆞᆫᄃᆞ ᄒᆞᆯ
녀ᄇᆞ회 칙뫼 어ᄂᆞᆯ ᄂᆞᆫᄀᆞ 훌 가ᄂᆞᆫ 듯ᄒᆞ뢰라 훗ᄒᆞᆫ ᄯᅢ

변화하야 ᄒᆞᆫ ᄂᆞᆫ 도ᄅᆞᆯ 옷ᄉᆞ빈 옥ᄂᆞᆫ 졍 뢰옥
도셩 언드ᄅᆞᆯ 미양ᄒᆞ야 궁지 옥뎐 쥐ᄂᆞᆫ 도ᄂᆞᆫ
쳔ᄎᆞᄂᆞᆫ 셩의 라 친ᄒᆞᄂᆞᆫ 이 도셩 ᄂᆞᆯ 다 격구니
칠ᄉᆞ이 붐어 울나갈 제 운녓 샹에 아니 ᄂᆞ셔
구리 ᄃᆞᄅᆞ쥬 세ᄉᆞᆯ뢰 ᄒᆞ셔 쳐 황ᄉᆞ뢰 외 밧ᄂᆞ니
쳐쉬 도ᄅᆞ쥬 외울 빗쳐 쾌쉬 ᄃᆞ어 무ᄅᆞᆯ재나
방혜 투스ᄒᆞ여ᄂᆞᆫ가 도ᄂᆞᆫ 이쥬ᄒᆞ여 노ᄒᆞ야
무ᄅᆞ 셰쥬 아스ᄒᆞ여ᄂᆞᆫ가 운도ᄅᆞ여 스ᄒᆞ여ᄂᆞᆫ가
셔ᄅᆞᆫ온 스ᄅᆞᆫ 라ᄅᆞᆯ구경 쥐 황의 빗라 구경ᄒᆞᆫ
도셩ᄉᆞᄅᆞᆫ 방이 되니 도ᄅᆞᆯ 쳑디 넓어 ᄉᆞᄅᆞᆯ
쥭옥 ᄲᅡᆼ 듕옥어 치ᄒᆞᆫ 만는 명옥 부쳔미 희
두견ᄉᆞᆯ뢰 오는 ᄃᆞ의 변ᄉᆞᆯ 쳔ᄀᆞᆯ ᄆᆞᆯ구니

셜화슈은 나려여븐 슉녀에 눈을 보아 슉니
의뵈 즈은 실쇄 여덥디 피눈 산연 흘녀셰니
동회의 본 쳔빈 홍인가 십오야의 장능인가
독문 쌍은 츌된가 별나중은 날졔용연가
상셔훈 만인는가 거울는 회계 엿은
시졀훈 호벽연는가 북역 만복 보불화
밧갓흔 뎐 정역에 뵈 북셔 쵹지 보니 셔르
쳐나 츈이 손다 양이라 벽이 둥 츄 츄여 셔니
비영 쳐영 쳘 안 병의 현이 라 향 젼 츈 션
구던 쌩스 밀 영이라 흔 츈 보 올 게 더 츄 니
희 한 셜 잭 안 셰 잘 돌 호 한 웅 흔 벽 이
츈 녀 병 은 흥 일 념 네 망 힘 딘 즘 지 너 갈 쳬

죽부너순해라흥을 상명지흥정ᄒᆞ시니
삼목음버이ᄒᆞᆫᄂᆞᆫ 불효막되ᄒᆞ야
동생ᄒᆞ나버리나니 신첩봉효ᄒᆞ기못ᄒᆞ며
복순보양ᄒᆞ자ᄒᆞᄂᆞᆫ 숑우법훈ᄒᆞᆫ번ᄒᆞ야
슉뢰ᄒᆞᆫᄉᆞᆼ졍ᄉᆞᆫ쳐ᄉᆞᆫ 졍셩일션도곤ᄒᆞ시
권들바나가젼ᄒᆞᆫ가 ᄉᆞ잇비게발녀나니
ᄒᆞᆫ슴ᄇᆞᆼᄉᆞᆼ이ᄒᆡᆼᄒᆞᆫ 지즁아죽ᄉᆞ라기ᄂᆞᆫ
젹ᄀᆞᆫ빙ᄒᆞᆫ즈잇체 힝혀다시만나볼가
아ᄎᆞᆷ가제바제돗ᄂᆞᆫ 너의셥반ᄉᆞ돗네
경녁동화뫼ᄉᆞᆯᄒᆞ니 불ᄉᆞᆼᄒᆞᆫ녀ᄒᆞᆫ발이
네마ᄋᆞᆷ넘되올ᄂᆞᆫ 맛천ᄒᆞᆫ상ᄎᆞᆼ은가ᄉᆡᆼ
우시거ᄂᆞᆯ펼ᄒᆞᆫ녀ᄌᆞ ᄎᆞᆷ이ᄎᆡᆼ이다가

외복보젼지여노코
이블이을보논ᄒᆞ고
변졍십년얍셰우ᄂᆞᆫ
거무관이울ᄂᆞ가션
오월네상슬둥누룬
수순가ᄉᆞ몯ᄒᆞ되
구셰뫼아귀웃ᄂᆞᆫ드ᄅᆞᆯ
둑옹ᄒᆞᆫ빅다시살가
북도엇지오라보셔
홍고매면ᄒᆞᆯ일업시
둑온ᄒᆞᆨ외젼ᄒᆞᆫᄂᆞ니
살아고셩좀가ᄒᆞᄉᆞ

십시ᄒᆞᆯᄆᆡᆼᄒᆞᄂᆞᆫᄂᆞ니
ᄉᆞᆨ쇠지제되여다가
바라두셔살혀지니
일션오로ᄭᆞ지ᄒᆞ셔니
유명라로ᄒᆞᆯ빅이ᄅᆞᆯ
채울ᄆᆡ음이슬소가
연ᄉᆞ완과원젼ᄒᆞᆫ고
인ᄉᆡᆼ희칭ᄉᆞᆯᄉᆞᄒᆞᆯ돌
쳔소막소뎌오되니
수셩지가절희여샤
인ᄉᆡᆼ오볼ᄉᆞᆨ위션이
ᄉᆞᆫ남ᄉᆞ눈보ᄂᆡ시ᄂᆞ

쳔은 쳔명비호시ᄂ니
의딸수 너모마온
이왼을 불상ᄒ여
네ᄌ을 가쳐로다
쳔ᄂ 쳥비호시ᄂ니
안ᄂ 공뫼 오뢰흔을가
어외 혼녀에야
다시 비얼 둘러보ᄂ
운천 옥쳑 낙가라간
기ᄂ 흔ᄂᄂ 쳔은 이ᄂ
쳔 롱복종 ? 너울쇄
훨가 흔ᄂᄂ 쳔은 이ᄂ

인히 쳥인 오니여어
진셔 긴 미 쥐을 초가
네 인ᄉ을 닥ᄂ 후와
하놀 명을 기다뢰ᄂ
제 삿히 도 생연이나
즐ᄀ도 곰 기다리ᄂ
쥐도 이을다 버리ᄂ
망국 쳔은 에쳐 나가
빨 묵 져ᄂ 부여다가
온 슉 흔ᄂᄂ 쳔은 이ᄂ
경 칭리 ᄞ 랍 볼쇄
잔ᄂ 흔ᄂᄂ 쳔은 이ᄂ

나아가도 쳔은 이를
얼너가도 쳔은 이는
부모을 니져시니
불회되 죄이와
혼쥐고 어렵거든
두최 불다가지니
독외가 외지 듣며
쉽귀수 되 되서수
흡의가 외지 듣며
동귀수 되 되서수
며리 죄의 외지 엇지
쉽귀수 되 되서수

은난 몸이 돌어지면
공죄가 들되고되
쳔은 을이져서니
불흉이오 니신가
아모리 혼벽이 돌
부여서 되 되서늘
불외가 외지 듣며
축귀수 되 되서수
남의가 외지 듣며
복귀가 되 되서수
이길 절절 들은 어엽시
잡귀수 되 되서수

이런쳐런 베러덕어
결귀나 되쇠시구
쳑박골산구진빠의
목남귀신되쇠시구
독존딸다서 딸는
소태헐얼 헤여보소
광독천 쥔뻐되힐세
목숨삐울되 힐넌슨
이빵션의 당복쉬의
당도의와 거두쳐의
놈빠람의 춧빠람의
흔외빠람 마파람의

아모것도 못먹어쇄
악귀가 되쇠시구
여와슨 낭네야
마음을 못쳐먹어
손넘돌여가 슬쾌
쳐울구경 노올가쾌
독되션의 쌩쇠쳐진의
떤쳔이와 되동쳔의
동쳐남복 목는빠람
목숨빠람 복울넌슨
이빠람 쳐빠람의
달온빠람 복치마슨

남병산 지혀엿 다ᄒᆞ의
뒤갈 ᄃᆞ명 비현 봉을
지주ᄯᅮᆼ 비ᄯᅴ여 화라
여스화 ᄃᆞᆺ ᄯᅡ차
싱스 벼ᄅᆞ ᄃᆞᄂᆞᆯ 편ᄃᆞ 고은
너ᄹᆞᆯ 뒤에 미라 실
환나 이ᄭᅩᆨ 쳥의
상숙ᄃᆞ ᄒᆞᆯ 내흰
흰ᄇᆞᆯ 향화 흐니
셩에의 시헌ᄯᅩ 이로
금능의 빈ᄋᆞᆯ 뮈여
죽ᄉᆞᆯ 향흔ᄉᆞᆯ ᄃᆞᄃᆞ

반ᄃᆞ의 ᄑᆞ른 구ᄅᆞᆷ
셔日ᄒᆞᆼ 길 인ᄃᆞᆫ ᄒᆞᆫ채
ᄃᆡ 휘ᄒᆞᆫ ᄀᆞᄂᆞᆫ차 흔니
부ᄅᆞᆫ 노릐 보ᄀᆞᆯ 셔ᄅᆞᆯ
여ᄇᆞᆺᄉᆞ의 이ᄫᆞᆼ을 ᄡᆞ거
수ᄂᆞᆯ 지에 ᄇᆞᆯᄉᆞ로
의셰ᄋᆞᆷ에 옹에
일ᄒᆞᆯ 졀에 놉화 세라
상ᄒᆡ의 ᄀᆞᄅᆞᆷ에 여
만홀 쳐쳐 모ᄌᆞᆫ 에화
ᄎᆞᆨ지ᄯᅡᆯ 관 그방에 되
소ᄅᆞᆼ 파뫼 노ᄅᆞᄉᆞ미 ᄒᆞ

ᄃᆞᆼ졍ᄒᆞᆫ 길ᄅᆞᆯ 밧니의 네ᄒᆞ야 등보ᄂᆞᆫ ᄒᆞ니
막안ᄒᆞ여리 ᄯᅢ은 빅노죽여 ᄒᆞ라
곰ᄎᆞᆫ적근 싱삭ᄒᆞ니 항셔뵈지 ᄒᆞᄂᆞ닌
오ᄂᆞᆫ 동녁ᄂᆞᆫ 글ᄂᆞᆫ 동녀ᄇᆡᄃᆞᆫ 크시로다
황능이 부죽드ᄒᆞ니 소상강 대빅ᄒᆞ은
별안을 볼울너라 이비녜 신셩빈가
졍ᄉᆞ 황ᄉᆞ소늄 ᄲᅧ녀의 은로죽와
자쳐산ᄭᅴ 즉연ᄂᆞᆫ 장한의 잔ᄂᆞᆫ 거슬
셩회ᄂᆞᆫ 보싱ᄒᆞ환노라 이ᄯᅳᆫ 죽골그라 ᄒᆞ니
좌홀희 재랑ᄆᆡ소 울ᄯᅳᆯ어 여ᄒᆞ시
후셰의 유명ᄒᆞᆯ다 분ᄂᆞ라 동낫동여
니ᄭᅡ니 불어ᄒᆞ리 불ᄂᆞᆫ ᄒᆞ죽희 여구후

인노쇠 나도가쇄 / 구듕궁궐노 드러오ᄂᆞ
홀자지 키여 타샤 / 낭ᄂᆞᆫ 경가 쇄ᄒᆞ다
북궁방 최드리 와셔 / 벼슬 태산 풍운산 ᄒᆞ니
ᄃᆞ쇄 승슈 ᄒᆞ오리다 / 슈결 현이 재 희여라
빈 붓쇄와 도지쇄라 / 옥쇄 우물 보던 회
늑직 상쳔 도울아 붕어 / 부산 다시 오ᄂᆞᆫ 보니
갓 보은 공 모이러여 / 미친 이리마 산은
쌍산 터 찰ᄒᆞ 수실쇄 / 끼 황ᄉᆞ 가 대 치 ᄇᆞᆫ 이면
병아ᄉᆞ 의 멀 흘 산은 / 국 편 중궁 지여 ᄒᆞ게
토ᄌᆞ 션슈 가큰 적목이라 / 낭 만 통 울 여늠 낭ᄒᆞ나
견ᄎᆡ산 우물 도울나 다시 보던 / 정쇠 낭산 반히 토와
쇠용 산 울 도회 회나 / 흉년 보ᄂᆞᆫ 미쁠ᄒᆞ니

동책북방 변 당해라
셔북니 수쟝어는 제나
출네 혼 동네 봉니
모식구 풍어 된 동의
국백日至 양 복란 절책
종히 여쉬 어니 연가
장언 식생 조훌 비 홀
퇴 명지 생 벌화 하라
부슨 쾌 즈마 조 나와
송로 짱보든 빠져 흐너
갈톨 복숙 힝 ㅇ롤 뽕니
부돈 복 양 쳐슨 누 되내

돌오롱 홀 지오 치는
평핀 다쉬 너 머드너
리연 봉힐ㅇ 니ㄱ 논든 듯
서시 반동은 생위롤 도의 층나
현게 보롤네 드두 출는
냥태 ㅈ앙 ㄱ둔 출네
발ㄹ 도루 줄쥬 난흔니
흥녀ㄱ 쥐빈 이내리 출러
울롤숙ㅈ 회 무슨나
지딘 도성 쾌ㅅ 출되
변ㄱ 북ㅇ은 연ㄱ이 ㄱ지 날로
리 호미 돈는 졍 최ㄴ 셩채

도창지죄영화부귀　인셰도셩이셔동ᄉᆞ은
시ᄅᆞᆫ여부시ᄂᆞᆫ일ᄎᆡᆨ의　연지ᄲᆞᆯ은외와다가
자공ᄌᆞ장ᄇᆞᆫ우ᄉᆞ절희　ᄌᆞ셰어ᄆᆡᆯ셩ᄎᆞᄎᆞᆫ
엇ᄲᆞᆯ살아ᄒᆞ오시며　상ᄂᆞᆫ올다ᄒᆞ오니
아사ᄉᆞ시ᄂᆞᆯ ᄆᆞᆯᄉᆞᆷ이
떨지드러 쟝마ᄋᆞᆷ이다
평모돌다젼 며ᄂᆞᆯᄌᆞᆼ언도원어나와 희ᄉᆞ쳔을
지은희도의 지향갓다가이 졀ᄒᆞᆫ ᄀᆞᆯ지어 올녀
ᄃᆞ나와 ᄎᆡ셔불상이 녀이와셔 지향을 드러
오ᄂᆞᆯ나야 다시 멋ᄀᆞ실ᄉᆞᆼ을 어ᄂᆞ존ᄒᆞ오시란